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123호 【루계 제25997호】 주체107(2018)년 5월 3일 (목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여 공화국창건 일흔돐을 자랑찬 로력적성과로 맞이하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세번째 해인 올해에 경제전선전반에서 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어제껴야 하겠습니다.》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정신을 높이 받들고

9월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자력갱생, 견인불발하여 4월 인민경제계획 빛나게 완수

전력공업부문에서

전력공업부문에서 우리의 힘과 기술로 생산공정의 현대화, 과학화를 더욱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줄기차게 벌어지는 속에 청천강화력발전소와 순천, 동평양화력발전소, 각지 대규모수력발전소들에서 높이 세운 4월 전력생산계획을 빛나게 완수하는 자랑을 떨치였다.

청천강화력발전소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내열세멘트를 자체로 보장하고 뽐프속주조기를 실정에 맞게 창안제작하며 통합생산 및 경영정보관리체계를 높은 수준에서 구축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4월계획을 기한전에 완수하는 혁신을 일으키였다.

순천화력발전소와 동평양화력발전소의 로동계급도 발전설비들을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대로 관리운영하여 4월 전력생산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하였다.

각지 탄광들에서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관철을 위한 투쟁으로 들끓는 석탄공업부문의 각지 탄광들에서 4월 석탄생산계획을 빛나게 완수하였다.

각지 대규모수력발전소들에서 과학기술을 원동력으로 생산적앙양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높이 세운 4월계획을 120% 이상으로 넘쳐 수행하였다.

허천강발전소와 서두수, 장진강발전소의 전력생산자들은 자체의 힘과 기술로 X형수차를 새로 제작도입하며 현대적인 수자식려자기와 조속기를 받아들이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리면서 4월 전력생산계획을 빛나게 초과완수하는 로력적위훈을 창조하였다.

수풍발전소와 장자강발전소, 위원발전소와 강계청년발전소,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와 삼수발전소, 부전강발전소, 대동강발전소와 회천발전소의 로동계급도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적극 받아들여 매일 높은 전력생산실적을 기록하였다.

본사기자 정순성

강동지구탄광련합기업소가 월계획수행의 앞장에 섰다.

이곳 일군들과 탄부들은 《모든것을 석탄증산을 위하여!》라는 전투적구호를 높이 들고 한결같이 떨쳐나선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4월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한 기세로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한편 탄전들에서도 혁신이 일어나는 속에 개천, 조양, 신림, 자강도공급탄광을 비롯한 여러 탄광들에서는 예비채탄장을 넉넉히 마련해놓은데 맞게 채탄에 력량을 집중하여 성과를 확대해나갔다.

룡문탄광, 룡수탄광에서는 석탄생산을 늘일수 있는 기술혁신안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설비, 자재, 부속품들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여 석탄생산을 늘이였다.

평대탄광에서는 막장작업의 기계화비중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맹렬히 벌리고 석탄운반에 큰 힘을 넣어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

회안청년탄광과 문천, 신리, 전천탄광을 비롯한 각지 탄광들의 탄부들도 부닥치는 난관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과감히 박차며 헌신적인 투쟁을 벌려 4월 석탄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덕천, 개천, 순천, 북창지구의 탄광련합기업소들에서는 막장마다에서 련속진공, 련속발파의 동음을 높이 울려 4월 기본굴진계획을 넘쳐 수행함으로써 석탄생산을 늘일수 있는 밝은 전망을 열어놓았다.

본사기자 명춘길

기계공업성아래 공장, 기업소들에서

기계공업성아래 공장, 기업소들에서 4월 공업총생산액계획과 공작기계, 전동기, 변압기를 비롯한 중요지표별계획을 완수하였다.

1.4분기 수력발전기, 전동기, 변압기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한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4월에도 부닥치는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가면서 대상설비생산에 박차를 가하였다. 특히 각종 소재에 따르는 합리적인 주강방법들을 받아들이고 부분품가공속도를 높이는데서 창조된 경험들을 교환하면서 집단적혁신을 일으켰다.

만경대공작기계공장, 구성공작기계공장, 김책공기기계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도 제품의 질제고에 힘을 넣으면서 과감한 공격전을 벌려 4월 공작기계생산계획을 수행하였다.

평양326전선공장, 경성애자공장, 문천발브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1.4분기에 이어 4월에도 일터마다에서 련속공격, 계속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각종 전선류, 애자류, 발브류생산계획을 완수하였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완강한 투쟁을 벌려 성적인 1.4분기 베아링생산계획수행에 이바지한 평양베아링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뜻깊은 4월에 들어와서도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 탐구동원하면서 치렬한 돌격전을 벌림으로써 생산성과를 확대하였다.

평양전동기공장, 성천강전기공장, 대동강전기공장을 비롯한 기계공업성아래 다른 단위들에서도 자력갱생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공격속도를 높여 맡겨진 계획을 완수하였다.

본사기자

수산성에서

수산성에서 4월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하였다.

계획수행기간 성에서는 서해중심어장에 력량을 집중하여 4월계획수행의 많은 몫을 해제끼도록 하였다.

성에서는 위성정보에 의한 어장탐색자료를 서해중심어장에 하루 2차 전송하는 체계를 보다 정연히 세우고 각지 수산사업소들에서 그에 따르는 기동적인 어로전을 벌리게 하였다.

한편 서해중심어장에 위치를 정한 성의 일군들은 물온도자료를 깊이 분석하고 그에 따르는 기동적인 어로전으로 적당, 기망당 물고기잡이실적을 높여나가도록 하였다.

각지 수산사업소와 수산협동조합의 어로공들은 어로전도 두뇌전, 기술전이라는 확고한 관점밑에 과학적인 물고기잡이방법을 적극 탐구하여 실천에 도입하였다.

문덕, 한천, 가마로수산사업소와 온천, 남포수산사업소가 계획수행기간 높은 실적을 기록하였다.

각지 수산협동조합의 일군들과 어로공들도 당의 수산정책관철에서는 큰 단위, 작은 단위가 따로 없다는 자각을 안고 생산성과를 확대하였다.

계획수행기간 함경북도수산관리국아래 김책수산사업소, 청진수산사업소의 일군들과 어로공들은 여러가지 어구들을 적극 창안제작하여 리용하고 어황에 따르는 기동적인 어로전을 벌리면서 성적인 계획수행에 이바지하였다.

신포원양수산련합기업소(모체), 양화수산사업소, 홍원수산사업소, 함경남도수산관리국아래 서호수산사업소의 일군들과 어로공들도 물고기잡이에 필요한 어구들을 충분히 갖추고 합리적인 어로방법들을 탐구하면서 출어일수를 늘이였다.

본사기자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에서—

본사기자 김진명 찍음

새형의 압축기생산 적극 추진

통성기계련합기업소에서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새로운 전략적로선관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통성기계련합기업소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대상설비생산에 계속 박차를 가하고있다. 특히 최근에 새로 개발한 10㎥ V형압축기생산을 적극 내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금성뜨락또르공장과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를 비롯한 기계공장들을 현대화하고 세계적수준의 기계제품들을 우리 식으로 개발생산하여야 합니다.》

채굴공업과 화학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효과적으로 쓰일수 있는 이 압축기는 지금 많은 일군들의 관심을 모으고있다.

10㎥ V형압축기는 지난 시기 련합기업소에서 생산하던 같은 능력의 압축기에 비해 무게는 3분의 1정도밖에 되지 않고 부피도 훨씬 작다. 뿐만아니라 진동이 거의나 없고 전력소비가 적으며 운반하기도 편리한것으로 하여 서부지구의 여러 탄광들에서 호평을 받고있다.

련합기업소일군들은 올해에 들어와 새형의 압축기생산목표를 높이 세우고 그 수행을 위한 전투작전과 지휘를 박력있게 해나가고있다.

당위원회에서는 새해 정초부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관철에로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을 불러일으키는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였다. 특히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정신을 높이 받들고 자력갱생과 과학기술의 위력을 힘있게 떨치며 새형의 기계설비들을 더 좋게, 더 많이 생산하도록 하는데 모를 박았다.

참모부에서는 10㎥ V형압축기생산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경제작전과 지휘를 짜고드는 한편 로동자, 기술자들이 창조적지혜를 합쳐 가며 합리적인 작업방법을 적극 탐구도입하도록 하였다.

선군압축기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압축기부분품들을 설계의 요구대로 가공하기 위해 불꽃튀는 전투를 벌리고있다. 직장에서는 새형의 압축기를 높은 질적수준에서 제작할수 있는 중요한 담보의 하나를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는데서 찾고 직종별에 따르는 기능공경기를 방법론있게 조직하고있다. 정밀가공종합작업반, 보링작업반을 비롯한 직장의 여러 작업반의 로동자들은 주 1차 진행하는 현장기술학습, 과학기술보급실운영사업에 적극 참가하여 앞선 경험들과 기술자료들을 터득하고있다.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이 작업반별로 활기를 띠고 벌어지는 속에 각종 압축기부분품들이 높은 질적수준에서 가공되고있다.

선군주철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도 싸우는 고지에 탄약을 보장하는 심정으로 압축기생산을 위한 소재보장에 힘을 넣고있다.

련합기업소의 기술일군들은 소재생산과 압축기부분품가공이 진행되는 현장에 좌지를 정하고 로동자들과 힘을 합쳐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들을 풀어나가고있다.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우리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높이 받들고 현대적인 기계설비생산에 박차를 가하고있는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의 앙양된 투쟁열의에 떠받들려 성과는 계속 확대되고있다.

본사기자 김충성

감자심기 시작

량강도에서

량강도에서 감자심기가 시작되였다.

도안의 농업근로자들은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정신을 높이 받들고 감자심기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량강도농사에서 기본은 감자농사이며 량강도에서는 감자농사에 힘을 집중하여야 합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에서는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 올해에 제시된 감자생산목표를 반드시 점령하기 위하여 영농사업에 대한 지도를 참신하게 짜고들었다.

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군들에서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을 높이 받들고 선진적인 영농기술과 방법에 의거하여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도록 하고있다.

도안의 당선전일군들과 강연강사들, 선동원들은 들끓는 로전에 나가 정치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려 경제강국건설의 주타격전방인 농업전선에서 승전고를 높이 울릴 기세드높이 당면한 영농전투에 떨쳐나선 농업근로자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근로단체조직들에서는 과학농사에서 앞선 단위들의 경험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대중속에 인식시키면서 감자심기가 활발히 벌어지고있는 농장포전들마다에서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의 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도록 하고있다.

우리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관철에로 부르는 도당위원회의 조직정치사업에 따라 도안의 농촌들에서는 감자심기를 적기에 끝내기 위한 영농전투를 힘있게 벌리고있다.

삼지연군에서는 겨울기간 수집정보의 감자포전들을 규격포전으로 만들고 많은 거름과 부식토를 생산하여 올해 감자농사의 확고한 토대를 마련한데 기초하여 감자심기성과를 날마다 확대해나가고있다.

삼지연군을 감자농사의 본보기단위로 꾸리데 대한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군안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 지원자들은 사회주의경쟁의 불길높이 감자심기에서 일정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고있다.

농장들에서는 대흥단식과학농법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하도록 영농지도를 짜고들면서 로력과 기계수단, 부림소들을 잘 배합하여 감자심기에서 속도와 질을 보장하고있다.

농사동농장에서 보여주기를 진행한것과 때를 같이하여 감자심기에 일제히 진입한 대흥단군에서는 기계수단을 총동원하여 영농공정을 적극 추진하고있다.

군에서는 많은 파철을 수집하여 수십종에 수천점에 달하는 농기계부속품들을 생산하여 농장들에 보내줌으로써 감자심기에서 큰 몫을 차지하는 뜨락또르들과 감자파종기들의 만가동을 보장하고있다.

백암군에서는 감자심기면적이 많은 조건에서 로력과 기계수단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는데 모를 박고 감자심기의 속도와 질을 보장하고있다.

보천군, 운흥군, 삼수군에서도 지대가 높고 비탈밭이 많은 조건에 맞게 합리적인 작업조직을 하여 감자심기를 다그치고있다.

도안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당의 감자농사혁명방침제시 20돐이 되는 올해에 감자 정보당 수확고에서 통장훈을 무를 기세로 비상한 정신력을 발휘하고있다.

특파기자 전철주

배무이와 배수리에서 혁신

함경북도협동수산경리위원회에서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정신을 높이 받들고 함경북도협동수산경리위원회 일군들과 어로공들이 배무이와 배수리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이곳 일군들과 어로공들은 자강력제일주의기치높이 불굴의 정신력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100여척에 달하는 배무이와 배수리를 진행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배무이와 배수리능력을 높이고 과학적인 어로전을 전개하며 양어와 양식을 활성화하여야 하겠습니다.》

도협동수산경리위원회에서는 배무이와 배수리를 다그쳐 물고기잡이성과를 확대할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를 쌓는것을 올해중심과업으로 내세우고 그를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짜고들었다.

당조직에서는 수산협동조합 일군들과 어로공들을 배무이와 배수리전투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화선식정치사업을 벌리였다.

일군들은 수산협동조합들에 배무이와 배수리계획을 정확히 주는 한편 어려운 조건에서도 자체의 힘과 기술에 의거하여 배무이와 배수리실적을 올리도록 적극 도와주었다. 또한 주 1차씩 총화사업을 엄격히 진행하면서 배무이와 배수리에서 앞선 단위들의 성과와 경험을 일반화하는 사업을 잘해나갔다.

위원회에서는 지난해 자체의 힘으로 한척의 선박을 건조한 성과에 토대하여 올해 또 한척의 선박을 무어낼 목표를 내세우고 힘찬 투쟁을 벌리였다.

해당 단위에서 이들의 사업을 물심량면으로 적극 도와주었다.

수산협동조합일군들과 어로공들속에서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이 활발히 벌어지는 속에 배무이와 배수리실적은 날을 따라 올라갔다.

포하수산협동조합이 배무이전투의 앞장에서 내달리였다.

조합의 일군들은 마력수가 높으면서도 여러 어로작업들을 진행할수 있게 설계를 새롭게 하고 배무이에 필요한 자재와 물자들을 앞장에서 해결해주었다. 조합에서는 공무기지를 튼튼히 꾸려놓고 부속품들과 부분품들을 자체의 힘으로 원만히 보장하여 수심일동안에 마력수가 높은 배들을 여러척이나 무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룡암수산협동조합에서는 서로의 집체적지혜와 힘을 합쳐 여러척의 배들을 짧은 기간에 무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성남수산협동조합을 비롯한 다른 수산협동조합들에서는 수심책에 달하는 배수리를 해제끼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위원회에서는 물고기잡이전투와 바다동식물자원보호증식사업을 동시에 힘있게 내밀었다.

일군들과 어로공, 양식공들은 과학적인 집중어로전을 벌려 물고기잡이에서 성과를 거두었으며 동식물배양장, 양식장들을 잘 꾸려놓아 수산자원을 전망적으로 늘일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펼쳐가시는 황금해의 력사를 끊임없이 빛내여나가려는 이곳 일군들과 어로공들의 불같은 헌신에 의하여 배무이와 배수리실적은 날을 따라 더욱 높아지고있다.

특파기자 리은남

당의 양어정책관철에 큰 힘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현대적인 양어기지들을 더 많이 건설하고 양어의 과학화, 집약화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황해북도에서

우리 당의 숭고한 인민사랑에 의하여 황해북도 린산군 대촌리에 현대적인 메기공장이 일떠섰다.

린산메기공장에는 알깨우기 및 새끼메기기르기호동, 실내비육호동, 박막식비육못 등이 그윽히 꾸려져있다. 또한 랭동고, 단백곤충배양장, 사료가공실은 물론 합숙과 편의봉사시설이 갖추어져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능력있는 일군들로 공사지휘부를 꾸리고 강력한 건설력량을 편성하는 등 공사를 박력있게 내밀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도당위원회와 공사지휘부에서는 새끼생산과 고기생산을 동시에 해나가면서 공사를 통이 크게 전개해나가도록 단계별목표를 높이 내세웠다.

도의 일군들은 쓸모없이 흘러가던 온천물을 리용할수 있게 메기공장설계를 완성하고 공사를 힘있게 내밀었다. 또한 동력을 쓰지 않는 배수체계를 도입하여 메기공장건설에 관한 모든 문제는 당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황해북도와 함경남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메기공장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성과를 거두고있다.

황해북도에서

현대적인 양어기지들을 더 많이 건설할데 대한 당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황해북도와 함경남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메기공장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성과를 거두고있다.

공사에 동원된 도속도전청년돌격대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청년책임, 만년보증의 원칙에서 마감공사를 기술적요구에 맞으면서도 현대적미감이 나도록 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도의 일군들은 메기공장을 과학화, 집약화, 공업화가 실현된 현대적인 공장으로 일떠세우기 위해 현장에 자주 나가 걸린 문제들을 풀어주고 설비들을 도안의 편관단위들에서 생산보장하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도첨단기술제품제작소의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은 자연에네르기를 적극 리용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현장에 달려나와 힘과 지혜를 합쳐나갔다.

도안의 많은 일군들과 근로자들도 메기공장건설을 물질적으로, 로력적으로 힘껏 지원함으로써 공사를 빨리 끝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메기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공사를 진행하는 긴장한 속에서도 새끼생산을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하여 시, 군양어장들에 보내주었으며 생산된 메기들을 도안의 학아소, 유치원들과 애육원들에 보내주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파기자 신경섭

함경남도에서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정신을 높이 받들고 함경남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함흥메기공장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당의 은정속에 새로 일떠서는 메기공장은 실내비육호동, 알깨우기호동, 배합사료가공장을 비롯한 양어시설물들과 수십종의 현대적인 설비들을 갖춘 로력절약형, 에네르기절약형의 메기생산기지이다.

도당위원회의 적극적인 지도밑에 현장지휘부의 일군들은 메기공장건설을 최단기간에 완공할 목표를 세우고 들끓는 현장에서 침입식정치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리는 한편 자재보장을 앞세우면서 시공지도를 짜고들었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전민총돌격전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될 불같은 열의를 안고 돌격대원들은 짧은 기간에 수십개의 건물들에 대한 기초파기와 콩크리트치기를 끝낸 기세로 하부망공사와 건축공사를 립체적으로 내밀었다.

그리하여 8개의 실내비육호동과 알깨우기호동을 비롯한 건물들에 대한 외벽타일붙이기와 지붕공사가 성과적으로 끝났으며 설비조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있다.

현장지휘부의 일군들은 불리한 작업조건에서도 공사를 본격적으로 내밀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제기있게 해나갔다.

홍덕구역의 일군들과 녀맹돌격대원들이 애국적헌신성을 높이 발휘하였다. 구역안의 동들에서 달려나온 녀맹돌격대원들은 사무청사, 합숙, 배합사료가공장을 비롯한 여러 건물건설을 기한전에 끝내기 위해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였다.

물정화장과 함거공사 등 여러 대상들을 맡은 홍남항의 돌격대원들은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을 활기있게 벌려 공사의 질을 보장하면서 일정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였다.

2.8비날론련합기업소, 룡성기계련합기업소, 홍남비료련합기업소를 비롯한 도안의 공장, 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메기공장설비들을 짧은 기간에 생산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였다.

도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메기공장건설장에 달려나와 힘있는 경제선동과 로력적지원으로 돌격대원들의 전투적사기를 더욱 높여주고있다.

특파기자 김경철

력사의 땅 대안이 전하는 은혜로운 사랑의 이야기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결정관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단천발전소건설장과 단소하나화학공업창설을 위한 건설장에 보내줄 설비생산으로 들끓고있는 대안의 로동계급.

굴지의 중기계생산기지인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는 지금까지 수많은 발전설비들과 대상설비들을 생산하여 나라의 기계공업발전에 크게 기여하여왔다.

세기를 이어오며 눈부신 비약의 한길을 걸어온 대안로동계급의 영웅적투쟁사의 갈피마다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가 수놓아져있다.

혁명의 년대기마다 대안의 로동계급을 투쟁과 전진에로 고무추동하시며 그들을 자력갱생의 투사들로 키우시고 뜨거운 사랑을 안겨주신 못잊을 력사를 전하고저 얼마전 우리는 대안땅을 찾았다.

우리의 이야기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다녀가신 기업소의 생산현장에서부터 시작된다.

보링반, 선반, 종삭반, 볼반을 비롯하여 덩지큰 설비들이 즐비하게 늘어선 현장들에서 울리는 기계들의 동음은 마치도 대교향악을 방불케 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기 단위에 깃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령도사적을 빛내이고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 수령님과 장군님의 생전의 뜻과 념원을 현실로 꽃피워야 한다.》

우리는 둔중한 음향을 울리며 부분품들을 나르는 천정기중기를 보며 치차직장에 들어섰다. 직장에서는 화력발전설비보수를 위한 치차를 가공하고있었다.

한 로동자가 다루는 공작기계가 유별나게 눈길을 끌었다. 가까이 다가가보니 위대한 수령님께서 현지지도의 길에서 보아주신 치차종삭반이였다. 그 기대는 CNC화된 공작기계로 더욱 현대화되여 생산에서 큰 은을 내고있었다.

영광의 일터에서 사적기대를 다루는 긍지가 남다를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에게 그는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날마다 이 기대앞에 설 때면 어버이수령님의 체취가 어려오고 수령님께서 그때처럼 이 기대앞에 다가오실것만 같아 격정을 금할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도 공작기계는 맞물린 소재에 정밀하게 홈을 파고있었다.

그앞에 서있느라니 기대의 동음이 대안땅에 새겨진 못 잊을 사연들을 들려주는듯싶었다.

우리가 현장에 들어서기 전에 돌아보았던 대안혁명사적관에서 강사가 하던 말이 떠올랐다.

감격도 새로운 주체70(1981)년 5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안중기계종합공장(당시)을 찾아주시였다.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관계일군협의회에서 자신께서 늘 말하지만 기계공업은 중공업의 핵심이며 공업의 심장이라고, 대안중기계종합공장은 기계공장들가운데서도 심장과 같은 공장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 나라 력사에서 대안중기계종합공장같이 크고 현대적인 기계공장을 가져보기는 처음이라고, 대안중기계종합공장은 나라의 큰 보배이며 경제를 끊임없이 발전시키기 위한 튼튼한 밑천이라고 교시하시였다.

그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공장에서는 발전설비를 생산하는데 큰 힘을 넣어 새로 건설하는 수력발전소들에 발전기를 제때에 보장해주어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생산을 끝어올리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협의회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로동자들에 대한 후방공급사업을 개선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도 주시였다.

강사의 이야기를 되새기면서 우리는 대형기계직장에 이르렀다.

수력발전설비를 생산하는 이 직장에서는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었다.

우람한 소재를 빙빙 돌리며 가공하는 공작기계가 고르로운 동음을 울리며 용을 쓰는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가슴이 벅차올랐다.

발전설비를 가공하느라 여념이 없는 로동자들속에서 우리는 나이지숙한 한 로동자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우리에게 대안로동계급 누구나의 가슴속에는 어버이수령님의 은혜로운 사랑의 이야기가 뜨겁게 새겨져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대안땅을 찾으시였던 력사의 5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관계일군협의회에서 그전에 대안지구 로동자들에게 닭알을 먹이기 위하여 새벽 5시에 대안닭공장건설장에 나가 건설사업을 지도하신 일을 추억하시면서 지도일군들은 로동자들에게 닭알을 한 알이라도 더 먹였으면 하는 자신의 마음을 생각하여서라도 닭알생산을 늘이기 위하여 아글타글 노력하여야 한다고 간곡히 이르시였다.

우리 수령님께서 돌이켜보신 날은 주체57(1968)년 9월 어느날 새벽이였다. 그때 새벽잠에서 깨여난 일군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어둠도 채 가시기 전인 이른새벽에 어버이수령님을 자기 집마당에서 맞이하게 될줄 어찌 알았으랴.

그러는 일군에게 수령님께서는 잠자는 동무를 깨워서 안되였다고 하시며 피곤하겠지만 닭공장과 젖소목장건설장을 함께 돌아보자고 하시였다. 일군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현지로 향하시며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로동자들의 생활형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절절한 가르치심이 일군의 폐부에 뜨겁게 흘러들었다.

우리가 지금 누구를 위하여 혁명을 하고있습니까. 로동계급과 인민을 위한 일이요. 그들을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살게 하는것이 나의 평생소원입니다. …

승용차가 건설현장을 가까이할무렵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로동자들에게 한알의 닭알이라도 더 먹이자면 우리가 이렇게 남 다 자는 새벽에 이슬을 맞아야 한다고, 이것이 우리 혁명가들의 보람이라고 교시하시였다.

력사의 땅 대안과 더불어 길이 전할 사랑의 이야기는 끝이 없었다.

언제인가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대안땅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령님께서 함숙생들이 오늘 아침에 한 식사를 그대로 청하여 친히 밥맛도 보시고 국맛도 보시며 로동자들의 식생활을 료해하시였는데 우리 수령님처럼 로동자들의 생활을 친부모의 심정으로 보살펴주시는분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고, 모든 일군들은 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언제나 로동계급의 충복이 되고 인민을 위한 복무자가 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수령님께서는 전후 그처럼 어려운 조건에서도 로동자들의 주택부터 지어주도록 하시였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받드시여 언제나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의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곳을 찾으신 주체98(2009)년 1월의 그날은 대안의 로동계급의 가슴에 뜨겁게 새겨진 잊을수 없는 날이다.

해방직후부터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무려 수십차 찾고찾으시면서 대안의 로동계급을 혁명의 선봉투사들로 키워주신 위대한 수령님,

그 가슴뜨거운 령도의 나날들을 돌이켜보시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와 같은 수많은 강위력한 기계공장들의 힘있는 뒤받침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는 그토록 짧은 기간에 사회주의공업화를 빛나게 실현하고 나라의 경제력을 급속히 강화할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우리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뜨겁게 추억하시였다.

력사의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대안의 로동계급을 위하여 온갖 사랑을 베풀어주신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받드시여 일군들에게 로동자들에 대한 후방공급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그루를 박아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념원을 찬란한 현실로 꽃피울 불타는 일념으로 기업소에서는 후방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내밀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랑의 력사가 끊없이 흐르고있기에 그 은덕에 보답하려는 대안사람들의 충정의 력사도 그처럼 뜨겁게 엮어지는것 아니던가.

우리가 찾은 압연직장에서도 이런 열정과 기세를 느낄수 있었다. 려명거리건설에 참가하여 준공식날 경애하는 원수님께 향기그윽한 꽃다발을 드린 크나큰 영광을 안고 사는 직장장 안광선동무는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받아안고 직장에서 생산공정들을 현대화하기 위한 사업에 박차를 가하면서 발전설비와 대상설비생산에 필요한 각종 규격품 소재보장사업을 더욱 힘있게 밀고나가고있다고 신심에 넘쳐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념원을 꽃피우기 위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의 웅대한 구상을 받들어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여 우리 혁명의 승리적전진을 가속화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대안의 로동계급.

우리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령도따라 우리 혁명의 승리적전진을 다그치기 위하여 용기백배하여 힘차게 싸워나가는 로동계급의 대부대가 있는 대안땅에서 앞으로 더 큰 성과들이 이룩되리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였다.

대규모기계공업기지의 웅자를 비껴탄은 대동강도 대안로동계급의 비상한 혁명적열의와 산악같은 힘을 안은듯 웅용히 흐르고있었다.

본사기자 최 유 일

후대들을 위하여 취해주신 조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사업에 교육사업을 앞세우며 후대들을 잘 키우는데 모든것을 아끼지 않고 복종시키는것은 수령님께서 일찌기 내세우신 중요한 방침의 하나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랑과 정을 합쳐도 비기지 못할 우리 당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속에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은 감동깊은 이야기들이 수놓아졌던가.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포성이 멎은지 두달밖에 안되던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종이를 생산하는 자그마한 공장을 찾으시였다.

꿈결에도 뵙고싶던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게 된 공장일군들의 가슴은 크나큰 감격으로 설레였다. 그러면서도 전후복구건설로 그처럼 바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잘 알려지지도 않은 자기들의 공장에 찾아오시였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다.

그때로 말하면 전체 인민이 미제를 타승한 기세로 전후복구건설에 떨쳐나섰으나 아직은 돌아가는 공장보다 숨죽은 공장이 더 많은 시기였다.

어디서나 전기와 석탄, 강재와 기계, 세멘트와 벽돌을 요구하고있었다.

그 어느것이나 미룰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의 손길을 기다리던 시기였던것이다.

일군들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위대한 수령님께 공장을 보여드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지직장에 들리시였을 때였다.

초지기앞에서 걸음을 멈추시고 종이가 쉬임없이 감겨드는 굴개를 바라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벌써 종이가 나온다고 하시면서 일군들에게 수고하였다고, 이렇게 기계가 돌아가고 종이가 나오는것을 보니 아주 기쁘다고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잠시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종이로 아이들의 학습장부터 만들어주자고 하시면서 한 일군에게 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몇이나 되는가고 물으시였다.

일군이 두명이라고 말씀올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동무들은 온 나라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여야 한다고, 아버지된 심정으로 그 아이들의 학용품을 걱정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그때에야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처럼 많은 중대사들이 기다리는 때에 어찌하여 멀고 험한 길을 헤치시여 공장을 찾으시였는지, 공장이 거둔 자그마한 성과를 두고 그토록 기뻐하셨는지 늦게나마 알수 있게 되였다.

일군들은 솟구치는 격정을 금할수 없었다.

카렐한 전화의 나날 분초를 다투어가며 총포탄을 실어날라야 할 자동차에 아이들의 학습장을 실어나르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고 전선길에서 한 어린이의 책가방을 손수 열어보시고 학습장이 없어 다 쓴 공책모서리에 글을 깨알처럼 박아넣은것을 보시고 가슴아프시여 학습장을 드신채 오래도록 서계신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이윽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금 학습장이 부족하다고, 나라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종이공장부터 먼저 복구하고 학습장과 교과서부터 만들어 어린이들에게 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일군들이 받아안은 감동은 이뿐이 아니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공기가 좋지 못한 제약실에도 들리시여 그곳에서 일하는 로동자들을 조국의 미래를 위해 큰 일을 하는 보배들이라고 하시며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안겨주실 때 일군들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새겼다.

정녕 위대한 수령님은 온 나라 아이들의 친어버이이십니다!…

우리 아이들의 다심한 학부형이 되시여 어린이들에게 좋은 학용품을 안겨주시려 끝없는 로고와 심혈을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념원은 오늘 경애하는 원수님에 의해 날로 더 활짝 꽃펴나고있다.

오늘도 들려온다.

민들레학습장공장을 찾으시였던 그날 이 공장은 당에서 제일 관심하는 공장이라고, 생산정상화의 동음을 더 크게 울리며 자식들에게 책을 꿰매주는 어머니들의 심정을 안고 질좋은 학습장을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한다고 하신 우리 원수님의 그 말씀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온 나라 대가정의 어버이로 높이 모시였기에 내 조국의 미래는 그리도 창창한것이다.

본사기자 강 원 남

혁명적구호문헌을 통하여 항일혁명 선렬들이 지녔던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을 가슴깊이 새겨가고있다.

—함경북도혁명사적관에서— 정철훈 찍음

일군의 자질—요구성

부단한 발전의 원천인 요구성,

이는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여 우리 혁명의 전진을 더욱 가속화하여야 하는 오늘날 우리 일군들이 사업과정에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자질이다.

요구성을 높인다는것은 결국 면밀한 계획과 과학적인 방법론에 기초하여 일이 제대로 되도록 끊임없이 사색을 기울이고 품을 들여 참새 훌륭한 결심을 띄게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뜨거운 포옹력을 가지고 군중을 겸손하게 대하면서도 사업에서는 요구성을 높이고 당적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일찌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일군들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훌륭한 혁명전사로 키우자면 높은 요구성을 제기하고 강하게 통제도 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이와 관련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를 우리 일군들은 다시금 가슴깊이 새겨야 한다.

어머니는 앓는 아이가 쓴 약을 먹지 않으려고 발버둥친다고 하여 도중에 포기하지 않으며 얼리어도 먹지 않으면 억지로라도 먹이고야만다. 어머니가 아이의 육체적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약을 끝까지 먹이는것처럼 일군들은 사람들의 정치적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교양하여야 한다. …

어머니에게 있어서 아이는 오만자루의 꿀을 들여 보호해야 할 더없이 귀중한 살붙이이다.

마찬가지로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우리 일군들에게 있어서 정범한 한사람한사람은 어머니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자식과 같은 존재이다.

이런 사명으로 하여 우리 일군들은 사람들의 정치적생명을 책임지고 끝까지 교양하고 이끌어주어야 한다. 여기에 사람들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있다. 이를 위하여 일군들은 사람들의 모든 생활을 다 파악하고 보살펴주어야 하며 요구성을 높여 통제도 하고 때로는 아픈 매를 들면서라도 옳은 길로 이끌어주어야 한다.

일군들의 요구성은 또한 사람들이 혁명적열정을 가지고 제기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뛰도록 바람을 불어넣는것이다.

용광로에 불을 지핀 다음 송풍기로 세찬 바람을 불어넣어야 쇠물이 끓듯이 일군들이 일단 사업을 포치한 다음 가만 있지 말고 보채야 일이 제대로 되여나갈수 있다.

오늘 우리 당에서 일군들에게 높은 요구성을 제기하는것은 일군들과 대중이 혁명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늘 긴장하게, 전투적으로 페기있게 일하도록 하자는데 목적이 있다.

때문에 일군들은 군중이 열정적으로, 창발적으로 일하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어야 하며 필요할 때에는 독촉도 하여야 한다.

사업을 포치해놓기만 하고 열매가 익기를 기다리는것은 씨를 뿌린 다음 부지런히 거름도 내지 않고 물도 주지 않으면서도 수확기를 기다리는 어리석은 농사군이나 다를바 없다.

군중속에 들어가 정치사업도 하고 길린 고리도 풀어주며 제때에 총화도 해주고 재포치도 하면서 집단이 부글부글 끓어번지게 요구성을 높여야 모든 일이 폭폭 풀려나갈수 있다.

일군들의 요구성, 이는 아래사람들의 분발심을 불러일으키는 수단이다.

끊임없이 새로운 과제를 안고 부단히 전진하는 곳에는 자만도취란 있을수 없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관록있는 한 지식인에게 중요한 과업을 맡길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그러자 일부 일군들은 그가 왜 해내겠는가고 못 미더워하면서 아마 힘에 부칠것이라고 우려하였다.

이 사실을 아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신의 의도는 그 지식인이 분발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하시면서 그러면 자기가 아직 멀었다는것을 느끼고 분발할수 있다, 물론 일하는 과정에 실패를 거듭할수 있는데 그것은 없다, 무슨 일에서나 성공한다는것은 거듭되는 실패가 가져다주는 보상이라는것을 알아야 한다, 성공할 때까지 계속 요구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요구성을 제기할줄 모르는 일군은 대오를 통솔할수 없고 사업을 내밀수 없다.

당에서 이러한 현상을 경계하는것은 우리 일군들이 강한 요구성속에서 자기의 인격수양을 쌓고 단련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우리 나라를 불성번영하는 사회주의국가로 건설하고 우리 인민의 자주적리상과 행복을 꽃피워나가기 위한 원대한 리상을 안으시고 불타는 열정의 순간순간을 수놓아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비상한 요구성에 심장의 박동을 함께 하는 일군이 오늘 우리 당이 바라는 참된 일군이다.

본사기자 량 순

신념교양을 짜고들어

신천군 호암리당위원회에서 당원들과 농장원들속에 혁명적신념을 새겨주기 위한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해나가고있다.

리당위원회에서는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에서 주별, 월별로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학습계획을 세우고 일군들부터가 앞장에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고있다.

얼마전 제2작업반에 나간 리당일군은 설창에 농장원들과 자리를 같이했다.

리당일군은 사령관동지께서 제시여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은 반드시 이룩된다는 투철한 혁명적신념을 간직하고 부닥치는 고난과 시련을 헤치며 굴함없이 싸운 항일혁명투사들의 투쟁자료를 감명깊게 해설해주어 농장원들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혁명은 곧 신념이며 신념이 없으면 참된 혁명가가 될수 없다는 진리를 심장속에 새겨주는 리당일군의 격식없는 정치사업은 농장원들의 정신력을 분출시켜 당면한 영농전투에서 성과를 거두게 하였다.

로농통신원 정 순 화

자기 직업을 사랑하는것은 우리 근로자들의 고상한 풍모

오늘 온 나라는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전인민적인 총공세로 끓어번지고있다.

우리 조국의 힘은 곧 인민의 힘이고 우리 국가의 전진은 인민의 전진이다. 사회주의의 마지막결승선을 향하여 폭풍쳐내달리는 주체조선의 강용한 기상에는 당이 맡겨준 초소를 굳건히 지키며 영웅적위훈을 창조해나가는 우리 인민들의 숭고한 정신세계가 비껴있다.

자기 직업, 자기 일터에 대한 애착과 긍지를 가지고 누가 보건말건 정력적으로 성실하게 일해나가는 참된 애국자대군이 있기에 당의 혁명적로선과 방침은 언제나 빛나는 현실로 전변되고 우리 식 사회주의는 사소한 침체와 답보도 없이 힘차게 전진하고있는것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람들이 자기 직업에 대한 애착과 긍지를 가지고 일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직업에 대한 애착과 긍지는 자기 일터, 자기 직업을 귀중히 여기고 맡은 일에 자신의 모든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나가는데서 뚜렷이 표현된다.

사람들의 직업은 천태만상이며 직업에 대한 관점과 태도는 사회제도에 따라 다르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직업이 돈벌이수단, 생존을 위한 수단이다. 그것은 생산수단이 극소수 자본가들의 개인소유로 되여있고 어떤 일이든 다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들의 권세와 치부를 위한것이기때문이다. 절대다수의 근로자들이 자기 직업에 대한 애착이 없이 그날그날의 생계를 위해 일하고있다. 한푼의 돈이라도 더 벌수 있다면 순간에 종전의 직업을 미련없이 버리는것이 자본주의사회의 세태이다. 이런 사회에서 직업에 대한 애착과 긍지가 있을수 없다는것은 자명하다. 직업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개인의 리해타산에 따라 언제든지 변할수 있는 실무적인 감정에 불과하다.

자기 직업을 사랑하는것은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되여있고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회주의사회에서만 찾아볼수 있는 사회주의근로자들의 고유한 풍모이다.

오늘 우리 인민들은 자기의 일터, 자기가 하는 일을 귀중히 여기며 무한한 책임성과 헌신성을 발휘하여 맡겨진 혁명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가고있다.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 애쓰고 어렵고 힘든 일을 스스로 찾아하는것이 우리 근로자들의 일본세, 로동생활기풍이다. 우리 인민의 이 열렬한 직업애, 로동에 대한 사랑의 밑바탕에는 무슨 직업이나 다 가장 신성하고 보람찬 일로 되고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 놓여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일이나 다 조국과 인민을 위한 영예로운 사업이다.

우리 나라에서 직업은 보수나 명예를 위한 일자리가 아니며 권세와 세도를 위한 수단은 더욱 아니다. 직무상권한을 리용하여 세도를 부리는 현상, 자기의 직업에 대하여 애착을 가지지 못하는 현상은 다 로동의 귀천을 가리는 자본주의적관점과 태도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근로대중은 물질적부의 창조자로서의 긍지를 가지지 못하고있으며 직업의 귀천이 명확히 갈라져 권력의 자리, 헐한 일을 하면서도 보수가 높은 일자리가 선망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 매 근로자들이 종사하는 직업은 사회적분공이며 당이 맡겨준 혁명초소이다. 누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은 다 사회와 집단을 위한것이다. 물론 사람마다 직위에서의 차이는 있지만 이 직위의 높이는 본질에 있어서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헌신하여야 할 책임의 높이, 일감의 높이라고 말할수 있다.

우리가 지켜선 모든 초소, 모든 일터들은 우리 당의 웅대한 사회주의강국건설구상을 실현하는 하나하나의 전구들이다. 당사업과 행정경제사업, 군사사업은 물론 과학교육사업, 탄광일, 농사일과 같은 직종들도 다 조국의 부강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절실히 필요하고 다른 직업이 대신할수 없는 중요한 사업들이다. 사람이 건강하려면 유기체를 이루고있는 모든 세포들이 다 건전하고 활발해야 하듯이 나라가 부강번영하려면 매 공민들이 자기가 맡은 초소에서 정력적으로 성실하게 일하고 모든 일터가 약동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기 직업을 사랑하고 맡겨진 초소에서 성실히 일하고있는것은 공화국공민으로서의 항심과 의리를 다하려는 순결한 사상정신의 발현이다. 사회주의 우리 조국은 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이다. 우리 나라에서 당과 국가의 모든 사업은 다 인민들을 위한것이며 근로자들자신이 주인이 되여 수행하여야 할 사업이다. 당이 맡겨준 혁명임무, 조국의 한 부분을 이루는 일터를 놓고 속구구가 많은 사람, 일신의 공명과 사리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태여난 첫날부터 먹여주고 키워주고 공부시켜 내세워준 어머니당과 조국앞에 배은망덕한 불효자이며 공화국공민으로서의 영예와 자격을 스스로 져버린 비렬한 인간이라고 하여야 할것이다.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으로 하여 오늘 우리 혁명의 전진도상에는 커다란 시련이 놓여있다. 그러나 우리의 과학자, 지식인들, 로동계급과 농업근로자들은 무한한 애국적헌신성을 발휘하여 맡겨진 혁명과업을 훌륭히 수행해나가고있다. 그들가운데는 조국과 인민을 위한 결사의 정신으로 전인미답의 길을 헤치며 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과업을 제일 당당하게 헌신적으로 관철한 국방과학전사들도 있고 락석감시근무중 순직한 남편의 뒤를 이어 인적드문 초소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두줄기 철길을 굳건히 지켜가고있는 녀성도 있으며 전의봉사부문에 자원진출한 네자매신발수리공들도 있다. 이들의 심장에 간직된것은 오직 하나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자기의 생명으로, 생활로 여기고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으로 조국을 받들려는 혁명적량심이며 애국충정이다. 이런 보석같은 마음들이 주추들이 되고 기둥이 되여 떠받들고있어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이 그토록 강대하고 승승장구하는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모든 직업은 근로자들이 자기의 한생을 가장 값있게 빛내일수 있는 보람찬 사업이다.

사회적존재인 사람의 최대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한생을 가장 값있고 긍지높이 빛내이겠는가 하는데 있다. 자기의 한생을 긍지높이 추억할수 있는 사람은 자기의 한생을 가장 값있게 보내였다고 자부할수 있다. 이런 사람들의 기억속에 없는 존재가 된다면 그처럼 허무한 삶은 없을것이다.

돈만 있으면 대통령감투도 명예도 살수 있고 부귀영화도 누릴수 있는 황금만능의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돈을 모으는 재미가 별재미라고 하지만 집단주의가 지배하는 우리 사회에서는 전혀 사정이 다르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한 삶의 정가기준은 직업이나 돈이 아니라 그가 사회와 집단에 필요한 존재인가, 동지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가 하는데 있다. 아무리 남보다 직위가 높고 화려한 직업에서 일한다 해도, 재산이 많고 오래 살았다 해도 조국과 인민을 위해 기여한것이 없다면 그것은 보람차고 행복한 삶이라고 말할수 없다. 그 어떤 직종, 직무에서 일하든지 오로지 맡은 일에 성실하고 조국과 인민을 위해 헌신분투하는것이 곧 동지들과 집단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 당과 인민의 추억속에 영생하는 길이며 자기자신을 위하여 가장 충실하게 사는 길이다. 먹을알이 있는데를 찾아다니거나 일의 경중을 따지면서 앞심있게 일하지 않는 사람은 한생을 빛나게 살수 없는것은 물론 후대들앞에도 떳떳하지 못하게 된다.

우리 당은 언제나 어렵고 힘든 부문, 직종에서 마른일, 궂은일을 가리지 않고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을 내세워주며 그들의 숨은 공로를 높이 평가하고있다. 도로관리원이라는 직업은 화려한 일도, 뭇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일도 아니다. 그러나 수십년세월 인적드문 산중에서 온 가족이 도로관리원이 되여 대를 이어 맡겨진 초소를 지켜가고있는 구봉령가족 소대원들의 고결한 애국적소행은 령도자의 값높은 평가속에, 만사람의 존경속에 빛을 뿌리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지난해 섬분교와 최전연지대, 산골학교들에 자원진출한 교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면서 당에서 걱정하는 문제, 당이 바라는 일에 한몸 아낌없이 내대는 투철한 신념과 백옥같은 충정의 마음으로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조국의 미래를 책임진 교원혁명가로서의 깨끗한 량심과 헌신의 자욱을 새겨가고있는 이들모두의 순결한 애국심에 머리가 숙어진다고, 온 사회가 이들을 적극 내세워주어야 하며 그들이 지닌 혁명가적인생관, 후대관을 따라배워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오늘 자기 일에 대한 끝없는 사랑을 지니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애국의 구슬땀을 바쳐가고있는 우리 인민들의 정신세계는 대단히 훌륭하다. 매 사람들이 지켜선 초소와 일터는 서로 다르지만 어느것이나 다 자신의 행복과 하나로 련결되여있고 맡은 일에서 높은 실적을 올리면 그것이 곧 당성이 되고 애국이 되는 우리 사회에서 일터에 대한 사랑은 곧 삶의 근본요구로 되고있다. 시련과 난관은 의연히 겹쌓여있지만 천만군민은 우리가 1년 고생하면 조국은 10년 발전한다는 혁명관, 애국관, 미래관을 지니고 최대의 마력을 내여 분투하고있다. 무엇이 부족하다고 일손을 놓거나 조건이 어렵다고 주저앉지 않으며 조국의 번영을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치는것을 더없는 보람으로 여긴다.

당의 원대한 구상따라 혁명적인 총공세로 만리마속도를 창조해나가고있는 우리 인민의 가슴가슴은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을 온 세계가 우러러보게 하려는 일념으로 불타고있다. 모두가 자기 일터에서 1번수가 되고 맡은 일에서 세계적인 창조물을 내놓으면 그것은 곧 자기 초소, 자기 일터에서 첨단을 돌파하는것으로 되며 우리 조국의 존엄은 시대의 상상봉에 올라서게 될것이다.

맡은 일을 가장 영예로운 사업으로 여기고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훌륭히 수행해나가는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숭고한 사상정신을 더욱 고조시켜나가는데서 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모든 일군들이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서 발휘되는 애국적소행들을 제때에 찾아 평가하고 널리 일반화하며 집단안에 서로 돕고 이끄는 혁명적동지애의 미풍이 차넘치도록 할 때 대중의 마음속에 자기 직업, 자기 일터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더욱 넘쳐나게 되며 집단의 혁명열, 투쟁열, 애국열이 최대로 분출되게 된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중앙결사옹위, 당정책결사관철의 제일선참호인 혁명초소를 억척같이 지키고 헌신적으로 투쟁함으로써 위대한 주체조선의 위용을 세계만방에 떨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장 임 향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받들고 증송의 기적소리 높이 울려간다

화차회귀일수를 단축한 주동적인 작전과 지휘

개천철도국 일군들의 사업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나라의 자립적경제토대가 은을 낼수 있게 석탄과 광물생산, 철도수송에서 련대적혁신을 일으켜야 합니다.》

화차회귀일수를 단축하는것은 화물수송을 신속히 보장하고 화차의 리용률을 높이는데서 결정적인 작용을 한다.

최근 개천철도국의 화력탄수송실적은 한달전에 비해 1.5배이상 높아졌다. 지난 시기 그리 시원치 않던 화력탄수송실적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는 바로 화차회귀일수를 줄인데 있다.

하다면 화차회귀일수를 단축한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결론부터 말한다면 걸린 고리들을 찾아내여 주동적으로 풀어나가는 이곳 일군들의 작전과 지휘에 있다고 볼수 있다.

지난 4월 어느날이였다.

새달이 시작되여 첫 한주일동안의 화력탄수송실적을 총화하는 이곳 일군들의 마음은 무거웠다. 일정계획에 비추어볼 때 화력탄수송실적이 떨어지고있었던것이다.

결정적인 대책이 필요하였다. 기관차나 화차에비가 없는 조건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도는 그 리용률을 최대로 높이는데 있었다.

이로부터 철도국에서는 화차의 회귀일수를 줄이는 문제가 심중히 토의되였다.

어기서 이곳 책임일군들이 잘한것은 화력탄수송렬차들에 대한 일군들의 청승을 새롭게 조직한것이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일군들이 화력탄수송렬차를 타고나가 현실에서 화차회귀일수를 줄이는데서 걸린 고리들을 하나하나 찾아쥐고 해결방도를 탐구하여 실천에 구현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화차회귀일수를 놓고 일군들의 실력과 청승결과를 평가하기로 하였다.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일군들의 청승을 조직한 첫날부터 화차회귀일수가 종전보다 훨씬 단축되였던것이다. 분발된 일군들은 서로의 실적을 놓고 말없는 경쟁을 벌리였다.

청승한 일군들모두가 석탄을 싣는 역들에서 탄광일군들과 무릎을 마주하고 석탄을 싣는 시간을 최대로 줄이기 위한 문제를 놓고 진지한 토의를 하였다. 그리고 운행로선의 철길상태와 기관차운전조법상 제기되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알아보았다. 중요기술역에서는 자신이 검차원이 되여 화차들의 기술상태를 점검하기도 하고 담당검차원들과 함께 불량개소를 퇴치하기도 하였다. 목적지에 도착해서는 또 석탄을 부리는 작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살펴보고 화차회귀일수를 줄일수 있는 예비들을 찾아냈다. 이와 함께 기관사와 렬차검사원들을 비롯한 철도국종업원들의 정신력을 발동하여 그들이 맡은 일에서 최대의 마력을 내도록 하는 사업에도 큰 힘을 넣었다.

결과 종전에 없었던 시간예비들이 계속 생겨났다.

사령원들과 기관사들, 렬차검사원들의 협동작전이 강화되는 속에 렬차의 머무름시간이 단축되였다. 조차원, 련결원, 기관사, 전철원들의 호상련계도 서로 밀접해져 차무이, 차갈이시간도 종전보다 절약되게 되였다.

철도국의 일군들은 이룩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화차회귀일수를 보다 줄일수 있는 방도들을 계속 찾아나갔다.

그 과정에 하나의 문제점을 포착하게 되였다.

청화력역에 수리정비기지를 꾸려놓으면 화차의 회귀일수를 훨씬 줄일수 있다는것이였다.

따져보니 청화력역에서 석탄을 부리는 시간은 적지 않았다. 그런데 수리정비기지가 없다나니 기관차를 정비할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랑비하고있었다. 이 시간을 수리정비에 효과적으로 리용한다면 여기에서도 화차회귀일수를 줄일수 있는 적지 않은 시간예비를 얻을수 있었다.

즉시 철도국의 책임일군들은 청화력역에 수리정비기지를 새로 꾸리기 위한 작전을 펼치였다.

무엇보다도 능력이 있고 내밀성이 강한 일군들을 현지에 내려보내여 수리정비시설을 짧은 기간에 갖추도록 하였다. 뿐만아니라 우수한 기능공들로 수리력량을 꾸리고 그들이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도록 하였다. 특히 책임일군들은 수리공들의 생활조건을 잘 보장해주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였다.

결과 청화력역에 새로운 수리정비기지가 튼튼히 꾸려져 종전에 랑비되던 기관차의 하차대기시간이 수리정비시간으로 전환되게 되였다. 화차전복기로 석탄을 부린 화차들의 수리시간까지 훨씬 단축되니 좋은 점은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그것은 그대로 화차의 회귀일수를 줄이는 성과를 안아왔고 이로 하여 화력탄수송에서는 획기적인 전진이 이룩되게 되였다.

현재 철도국에서 지난 시기에 비해 1.5배이상 뛰여오른 화력탄수송실적이 정상유지되고 있는 사실이 그것을 웅변으로 보여주고있다.

지금 그 력을 톡톡히 보고있는 수리정비기지를 놓고 이곳 책임일군들이 다시금 깊이 새긴것이 있다.

그것은 일군들이 자기 사업에 대한 높은 책임감을 안고 현실에 뛰여들어 주동적으로 작전하고 지휘할 때 수송실적을 끌어올리는데 이바지할수 있는 실질적인 방도들을 찾게 된다는것이다.

물론 이전시기에도 이곳 일군들은 기관차들에 청승하군 하였다. 그러나 기관차를 타고 수송을 지휘하면서도 사무실적인 사업방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다나니 아래실정을 손금보듯 훤들지 못하였고 맡은 일에 대한 연구도 부족하였다는것이 지금에 와서 철도국의 일군들이 찾은 교훈이다.

김순길 개천철도국 참모장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들이 화차의 회귀일수를 줄이기 위한 투쟁을 벌리면서 다시금 깊이 새긴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군들의 주동적인 작전과 지휘가 단순히 실무적인 문제이기 전에 혁명앞에 지닌 임무에 대한 책임성과 헌신성에 관한 문제이라는것입니다.》

우리 당이 제시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오늘의 투쟁에서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일군들이 어떤 자세와 립장을 지니고 사업을 설계하고 전개해나가야 하는가를 깨우쳐주는 의미깊은 말이였다.

김 국 철

강철같은 규률과 질서를 세워

석산역에서

지난 수십년간 화력탄수송에 이바지해온 석산역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역안에 강철같은 규률과 질서를 세워 계속 실적을 올리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철도운수부문에서 규률을 강화하고 수송조직과 지휘를 개선하여 렬차의 정상운행을 보장하며 철도의 현대화를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합니다.》

화력탄수송보장으로 들끓던 지난 어느날 현장에서 전투를 지휘하던 최훈역장은 무심히 대할수 없는 문제점을 찾게 되였다.

일부 종업원들속에서 지난 수십년간 화력탄수송보장에서 큰 이상현상이 없었다고 하여 마음의 랑개를 늦추려는 경향이 나타났던것이다.

사소한 해이도 엄중한 후과를 초래할수 있는 철도운수부문의 특성을 놓고 볼 때 이것은 스쳐지날수 없는 문제였다.

당에서는 철도에 강철같은 규률을 세울데 대하여 거듭 강조하고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한 역장은 종업원모임에서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하였다.

수십년간 무사고운행을 보장할수 있은것은 전세대들이 당의 령도를 충정으로 받드는 한길에서 순간도 마음의 랑개를 늦추지 않고 헌신적인 투쟁을 벌려왔기 때문이다. 우리도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여 대동력기지의 숨결을 더해주는데 적극 이바지하자.

그의 말은 모든 종업원들의 심금을 울려주었다.

모두가 전세대 철도수송전사들의 투쟁정신을 따라배워 더 많은 석탄을 대동력기지에 보내주기 위한 투쟁에 계속 박차를 가할 결의를 다지였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역의 일군들은 대중의 앙양된 열의가 그대로 높은 수송실적으로 이어지도록 전투조직과 지휘를 더욱 짜고들었다. 무엇보다도 역안에 군대와 같은 강한 규률과 질서를 세워 집단의 전투력을 높여나갔다.

모든 종업원들은 화차도착으로부터 석탄상차후 출발에 이르기까지 매 공정에서 제정된 규률과 질서를 엄격히 지키면서 긴장한 나날을 이어갔다.

역앞에 긴급한 화력탄수송과제가 나섰을 때였다.

많은 량의 석탄을 제때에 실어보내자면 모든 공정에서 정해진 시간을 철저히 지켜야 하였다.

치밀한 조직사업에 따라 정석원, 홍재영동무를 비롯한 운전지휘원들은 화차도착에보를 받고 그에 맞게 탄광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석탄상차를 빠른 시간에 할수 있는 사전준비를 면밀히 하였다.

역의 모든 종업원들은 현장조건을 잘 타산하여 제정된 시간안에 전투를 성과적으로 끝낼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실천하였다. 조차원들이 빠른 시간에 차갈이를 진행하였고 화물원들은 높은 책임감을 안고 탄부들과 함께 긴장한 상차전투를 벌림으로써 석탄을 싣은 화차들을 제때에 떠나보내였다.

치차처럼 맞물린 석탄수송전투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강한 전투력을 발휘하며 긴장한 분초를 이어온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이날 역에서는 하루계획을 훨씬 넘쳐 수행하였다.

이날의 전투를 통하여 모든 종업원들은 순간도 해이됨이 없이 집단안에 강철같은 규률을 세워나갈 때 그 어떤 긴급한 수송보장과제도 원만히 수행해나갈수 있다는것을 다시금 깊이 새겨안게 되였다.

지금 당이 제시한 새로운 전략적로선관철에 떨쳐나선 석산역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철도에서 규률은 곧 생명이라는것을 명심하고 신들매를 더 바싹 조여매고 대동력기지의 숨결을 더해주기 위한 수송전투를 힘있게 벌리고있다.

본사기자

1950년대 수송전사들의 투쟁정신으로

청룡차량대 명당렬차검사대대에서

청룡차량대 명당렬차검사대대의 일군들과 수송전사들이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을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장들에 필요한 세멘트수송에서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용접의 불보라 날리는 화차수리현장과 공작기계의 동음높은 부속품가공현장, 낮에도 밤에도 검사마치소리가 가락맞게 울리는 구내선의 그 어디서나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기상이 세차게 나래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주체조선의 건국과 발전행로에 빛나는 영웅적투쟁과 집단적혁신의 전통을 이어 혁명의 최후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가야 합니다.》

지난 어느날 렬차검사결과를 료해하던 대대장 박영수동무의 얼굴에는 긴장한 빛이 어리였다.

화차를 수리해야 할 량이 적지 않았던것이다. 특히 시급히 수리해야 할 화차들에서 10여개의 차바퀴덧보강이 제일 어려운 문제로 나섰다.

이것은 종전의 2배나 되는 아름찬 작업량이였다. 하지만 대대장은 조건과 가능성을 따지기 전에 무조건 수행해야 한다는 결심을 내리였다.

1950년대 수송전사들의 투쟁정신, 투쟁기풍으로 일할 때 불가능이란 없다.

그만이 아닌 온 대대의 검차원, 수리공모두의 가슴가슴은 이런 자각으로 높뛰였다.

화차수리량이 늘어난 조건에 맞게 박영수동무를 비롯한 지휘관들은 수리전투를 립체적으로 벌리기 위한 통이 큰 작전을 펼치였다.

우선 수리선에서 차바퀴덧용착을 진행하고 구내선에서는 부속품교체전투를 동시에 벌림으로써 석탄을 무르는 작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살펴보고 화차회귀일수를 줄일수 있는 예비들을 찾아냈다. 이와 함께 기관사와 렬차검사원들을 비롯한 철도국종업원들의 정신력을 발동하여 그들이 맡은 일에서 최대의 마력을 내도록 하는 사업에도 큰 힘을 넣었다.

결과 종전에 없었던 시간예비들이 계속 생겨났다.

사령원들과 기관사들, 렬차검사원들의 협동작전이 강화되는 속에 렬차의 머무름시간이 단축되였다. 조차원, 련결원, 기관사, 전철원들의 호상련계도 서로 밀접해져 차무이, 차갈이시간도 종전보다 절약되게 되였다.

철도국의 일군들은 이룩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화차회귀일수를 보다 줄일수 있는 방도들을 계속 찾아나갔다.

그 과정에 하나의 문제점을 포착하게 되였다.

청화력역에 수리정비기지를 꾸려놓으면 화차의 회귀일수를 훨씬 줄일수 있다는것이였다.

따져보니 청화력역에서 석탄을 부리는 시간은 적지 않았다. 그런데 수리정비기지가 없다나니 기관차를 정비할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랑비하고있었다. 이 시간을 수리정비에 효과적으로 리용한다면 여기에서도 화차회귀일수를 줄일수 있는 적지 않은 시간예비를 얻을수 있었다.

즉시 철도국의 책임일군들은 청화력역에 수리정비기지를 새로 꾸리기 위한 작전을 펼치였다.

무엇보다도 능력이 있고 내밀성이 강한 일군들을 현지에 내려보내여 수리정비시설을 짧은 기간에 갖추도록 하였다. 뿐만아니라 우수한 기능공들로 수리력량을 꾸리고 그들이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도록 하였다. 특히 책임일군들은 수리공들의 생활조건을 잘 보장해주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였다.

결과 청화력역에 새로운 수리정비기지가 튼튼히 꾸려져 종전에 랑비되던 기관차의 하차대기시간이 수리정비시간으로 전환되게 되였다. 화차전복기로 석탄을 부린 화차들의 수리시간까지 훨씬 단축되니 좋은 점은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그것은 그대로 화차의 회귀일수를 줄이는 성과를 안아왔고 이로 하여 화력탄수송에서는 획기적인 전진이 이룩되게 되였다.

현재 철도국에서 지난 시기에 비해 1.5배이상 뛰여오른 화력탄수송실적이 정상유지되고 있는 사실이 그것을 웅변으로 보여주고있다.

지금 그 력을 톡톡히 보고있는 수리정비기지를 놓고 이곳 요대상건설속도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세멘트수송렬차의 무사고운행에 지장이 있을세라 렬차검사에서 스스로 요구성을 높여나간 김경림, 강병찬, 최성철, 황창호동무들과 깊은 밤에도 불꽃튀는 전투를 벌려 상반년 화차수리계획을 앞당겨 수행하는데 크게 한몫한 수리공 천성국동무…

화차수리를 책임적으로 하여 약동하는 조국의 숨결에 활력을 더해주려는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들의 투쟁열의는 짧은 기간에 각종 부속품생산을 1.5배로 끌어올릴수 있게 카열로의 송풍기날개를 개조한 사실에서도 엿볼수 있다.

1950년대 수송전사들의 투쟁정신을 본받아 세멘트수송길에 위훈을 아로새길 일념안고 대대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공화국창건 일흔돐을 향하여 전진의 보폭을 더욱 크게 내짚고 있다.

본사기자 정경철

높은 책임감을 지니고

평양철길대에서

나라의 동맥인 두줄기 궤도우에 증송의 기적소리 높이 울리고있다.

그 힘찬 기적소리를 높이 울려가는 사람들속에는 평양철길대 일군들과 종업원들도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철길강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계속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많은 철길고착품과 철길기공구들을 자체로 생산보장, 무볼트식콩크리트침목 도입, 이것은 평양철길대에서 최근에 이룩한 성과들이다.

철길대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철길강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에 애국헌신의 마음을 깡그리 쏟아붓고있다.

수도 평양의 철길을 우리가 지켜섰다. 이것은 철길대일군들과 종업원들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된 일터에 대한 긍지이고 애착이며 높은 책임감을 낳는 원천이다.

현재 철길대에서는 년간에 계획하였던 철길기공구들의 생산을 전부 결속한 상태이다. 뿐만아니라 수많은 철길고착품들을 만들어 철길강도를 높이기 위한 투쟁을 활기있게 밀고나가고있다.

결코 쉽로 이루어진 성과가 아니다.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한몸이 그대로 침목이 되고 레루가 되여서라도 나라의 동맥을 굳건히 지켜가려는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불같은 열정과 헌신이 안아온 자랑찬 결실이다.

사실 철길대에서 필요한 철길기공구와 철길고착품을 자체로 만들어쓴다는것은 힘한 일이 아니다. 특히 필요한 자재를 해결하는 문제가 제일 어려운 일로 나선다. 이곳 철길대의 일군들은 자재문제를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켜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였다. 이렇게 자재문제가 풀리니 철길기공구와 철길고착품생산에서는 혁신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철길대에서는 그에 맞게 철길강도를 높이기 위한 투쟁을 보다 힘있게 내밀었다. 그 과정에 무볼트식콩크리트침목을 시범적으로 도입한데 이어 그 성과를 확대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있다.

여기서 주목되는것은 철도의 주인, 나라살림살이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안고 낡은 콩크리트침목을 재생하여 무볼트식콩크리트침목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있는것이다.

평양철길대에서 이룩된 성과는 이뿐이 아니다.

보통강철길소대의 철길원들은 조국의 두줄기 궤도우에 울려퍼지는 증송의 기적소리는 곧 전진하는 조국의 숨결이라는 높은 자각을 안고 지난 3월말 단 2일 동안에 천수백m의 구간에 대한 철길다짐작업과 곡률바로잡기작업을 전부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시포철길중대와 간리북철길소대, 백암철길소대의 전투원들은 나라의 동맥이며 인민경제의 선행판인 철도를 담당한 수송전사라는 영예와 긍지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철길보수작업과 침목교체작업 등 철길강도를 높이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서 즐기차게 내달리였다.

지금 철길대에서는 앞선 단위들을 적극 내세워주고 그 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일터마다에서 집단적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하고있다. 하여 불량레루와 침목바꾸기, 자갈보충과 다짐 등 철길강도를 높이기 위한 투쟁에서 련일 혁신이 창조되고있다.

본사기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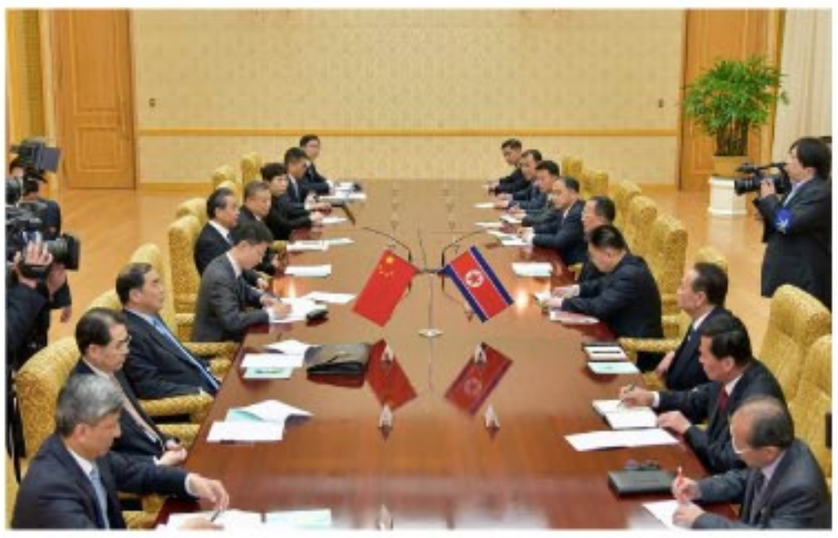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경모의 정 표시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2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왕의동지와 일행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그들은 반제자주, 사회주의를 위한 정의의 위업수행과 조중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관계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을 담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에 꽃다발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상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사이의

회담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상 리용호동지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왕의동지사이의 회담이 2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두 나라 최고령도자동지들께서 력사적인 상봉시 합의하신데 기초하여 조중친선협조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확대강화발전시켜나가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깊이있게 토의하였다.

또한 조선반도정세를 비롯하여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회담은 시종 친선적이며 진지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회담에는 우리측에서 외무성 부상 리길성동지, 대외경제성 부상 구본태동지, 관계부문 일군들이, 중국측에서 외교부장일행, 주조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 리진군동지, 대사관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위하여

환영연회 마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우리 나라를 방문한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환영하여 2일 저녁 만수대의사당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상 리용호동지와 관계부문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왕의동지와 일행, 주조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 리진군동지, 대사관 성원들이 연회에 초대되였다.

연회참가자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전통적인 조중친선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잔을 들었다.

연회는 형제적이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조선중앙통신】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평양에 도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상 리용호동지의 초청에 의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왕의동지가 2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외무성 부상 리길성동지, 관계부문 일군들과 주조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 리진군동지가 왕의동지와 일행을 따뜻이 맞이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우의탑을 찾았다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왕의동지와 일행이 2일 우의탑을 찾았다.

외무성 부상 리길성동지, 관계부문 일군들과 주조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 리진군동지, 대사관 성원들이 동행하였다.

중국국가와 우리 나라 애국가가 주악되였다.

우의탑에 왕의동지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참가자들은 항미원조보가위국의 기치를 높이 들고 제국주의무력침공을 반대하는 조선전선에 참전하여 무비의 희생성을 발휘한 중국인민지원군 렬사들을 추모하여 묵상한 다음 우의탑을 돌아보았다.

왕의동지는 감상록에 《렬사들은 영원불멸할것이며 친선은 영원하리라》라는 글을 남기였다.

【조선중앙통신】

완강한 공격전으로 도로건설을 힘있게

은산군일군들의 사업에서

은산군에서 도로건설이 통이 크게 진행되고있다.

군안의 기관, 공장, 기업소를 비롯한 여러 단위에서 달려나온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읍지구에서부터 랑정고개방향으로 수천m의 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전투를 힘있게 벌리고있다. 이들은 건설과정에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과감히 뚫고나가면서 굴함없는 공격전으로 날마다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국토관리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킬데 대한 당의 뜻을 심장으로 받들고 대오의 기수가 되여 작전과 지휘를 전투적으로, 박력있게 해나가고있는 군일군들의 진위적인 일본새가 공사장과를 믿음직하게 탈바꿈해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당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과 사업에 대한 높은 책임성, 왕성한 의욕을 가지고 일판을 통이 크게 벌리며 끝장을 볼 때까지 완강하게 밀고나가 당의 구상과 의도를 반드시 실현하여야 합니다.》

군일군들은 올해의 봄철국토관리총동원기간에 진행해야 할 사업중에서 이 도로건설을 중심고리로 틀어쥐였다.

늘어나는 수송수요와 인민들의 교통상편리를 원만히 보장하고 군소재지의 문화적면모를 일신시키는데서 도로건설문제가 매우 중요하기때문이였다.

군에서는 단계별공사계획을 세운데 기초하여 건설을 시작하였다. 빈틈없는 준비를 갖추고 떨쳐나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고 서로의 힘과 지혜를 합쳐가며 공사를 립체적으로, 전투적으로 벌려나갔다.

착공의 첫삽을 박은 때로부터 많은 토량을 치리하고 수만㎥의 막돌과 잰자갈을 마련하여 도로기초층의 두께를 기술적요구대로 보장하면서 힘찬 돌격전을 벌렸다. 겨울 짧은 기간에 수천m구간의 도로로반을 기본적으로 형성하였다.

군일군들은 여기에 만족할수 없었다. 아직 해야 할 건설과제는 이미 진행한 공사량에 못지않게 많았던것이다. 130여m의 건설구간에서는 3천여㎥의 암반을 까내야 하였다. 뿐만아니라 2개의 콩크리트다리도 새로 건설해야 하였다. 그중의 하나는 길이가 100여m나 된다.

군에서는 이처럼 규모가 큰 다리를 건설해본 경험이 없었다. 여기에 필요한 강재와 세멘트 등 많은 자재를 해결하는것 역시 헐한 일이 아니였다. 더우기 봄철에 들어와 농사에 힘을 넣으면서 나무심기, 강하천정리를 비롯한 여러가지 사업을 동시에 내밀자니 로력이 긴장한것이 더욱 문제였다.

이런 조건에서 도로건설을 군자체의 힘으로 해낼수 있겠는가 하고 우려하는 일군들도 있었다.

하지만 군당책임일군의 결심은 확고하였다.

조건타발을 하는 곳에서는 언제 가도 기적이 일어나지 못한다. 무조건 해야 한다는 관점이 투철하면 불가능도 가능으로 전환시킬수 있다, 도로건설은 단순한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과 직결된 중요한 정치적사업이다, 때문에 이 사업을 완강하게 밀고나가 기어이 끝장을 보아야 한다.

군당책임일군의 말은 일군들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이번 도로건설과정을 통하여 자신들의 충정심을 검증받겠다는 각오밑에 군일군들은 공사의 성과적보장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해당 단위들에 공사과제도 명백히 분담하였다.

여기서 주목되는것이 있다. 다리건설, 암반굴착공사와 같은 제일 어렵고 힘든 대상은 군당위원회, 군인민위원회, 군국토환경보호관리무를 비롯한 군급기관들이 전적으로 맡아하도록 한것이였다.

대중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일군들의 얼굴을 먼저 쳐다본다. 일군들의 신심넘친 모습과 헌신적인 실천은 대중의 자각성과 열의를 더욱 북돋아주는 귀중한 밑거름이다. 때문에 일군들의 이신작칙은 때마다의 말보다 더 위력한 정치사업으로 된다.

이것을 자각한 군일군들은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서 전격의 돌파구를 열어나갈것을 결심하고 실천행동으로 그것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군안의 모든 단위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분발시키고 그들의 열의를 더욱 북돋아주었다.

군일군들은 대중의 앙양된 열의가 높은 공사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보장사업을 적극 따라세웠다.

일군들이 제일 힘든 자재, 설비구입문제를 자기 몫으로 여기고 맡아나섰다. 발이 닳도록 뛰여다니며 강재와 세멘트, 설비, 각종 기중구 등을 해결하기 위해 애썼다.

일군들이 앞세를 메고나선것만큼 집단적혁신이 일어난다.

공사에 참가한 근로자들도 자력자강의 정신으로 없는것은 만들어내고 모자라는것은 찾아내면서 아글타글 노력하였다. 이렇게 자재와 설비가 선행되자 공사는 더욱 활기를 띠고 추진되였다.

군일군들이 공사속도를 높이기 위한 합리적인 방도를 찾아 실천해나간것도 본받을만 한것이다.

사실 공사에 참가한 단위들마다 로력과 수단이 각이하고 작업대상도 여러개나 되였다. 이런 조건에서 각 단위들에 작업과제를 일률적으로 주면 그 수행에서는 차이가 생기게 되고 나중에는 공사전반에 후과를 미칠수 있었다.

모든 일을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혁신적으로, 과학적으로 전개해나갈 때 어디서나 창조와 비약이 일어나는 법이다.

군일군들은 로력과 수단을 합리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었다.

륜전기계들이 비교적 많은 공장, 기업소들에는 자체수송과 함께 운벽공사과제를, 그렇지 못한 단위들에는 물도랑공사를 비롯한 대상들을 맡겨주었다. 이러한 과학적인 타산과 옳은 결심채택으로 하여 공사실적은 날마다 높아갔다.

공사의 성과여부는 대중의 정신력을 어떻게 발양시키는가에 달려있다.

문제를 이렇게 본 군일군들은 현장에서의 화선식정치사업을 참신하게 벌려나갔다.

대중의 심장에 불을 다는 드세찬 사상전을 들이대는 여기에 기적창조의 비결이 있다.

군일군들은 선전선동력량과 수단들을 총집중하여 대중의 정신력을 폭발시키는 사상공세의 포성을 더 높이 울려 전투장마다에 자력갱생의 투쟁기풍이 싹차게 하였다.

여기에 고무된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제힘을 믿고 떨쳐나설 때 막혔던 길도 반드시 열린다는 배심을 가지고 공사를 힘있게 밀고나갔다.

암거공사, 수통공사를 담당한 단위들에서는 가치있는 공법을 받아들여 맡겨진 과제를 짧은 기일에 질적으로 끝낼수 있게 하였다.

도로구간에 대한 나무심기를 맡은 일군들과 근로자들도 뜨거운 향토애, 조국애로 가슴을 끓이며 한그루, 한그루를 정성껏 심었다.

다리건설, 물도랑, 옹벽쌓기 공사장들에서도 따라앉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이 힘있게 벌어졌다.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높이 받들고 필승의 신심드높이 현속공격, 계속혁신, 계속전진하고있는 군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애국적헌신성에 의하여 도로건설은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군의 현실은 일군들이 당정책관철에 대한 투철한 관점과 립장을 지니고 주도세밀한 작전과 지휘로 모든 일을 전격적으로 내밀 때 국토관리사업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리영하

중시한 영농작업의 기계화문제

박천군 맹중협동농장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량종자와 다수확농법, 능률적인 농기계들을 대대적으로 받아들이고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 알곡생산목표를 반드시 점령하며 축산물과 과일, 온실남새와 버섯생산을 늘여야 합니다.》

뜻깊은 올해에 알곡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는데서 가장 중시하고 일판하게 내밀어야 할 사업이 있다. 영농작업의 기계화를 더욱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는것이다. 이것은 박천군 맹중협동농장의 일군들만이 아닌 모든 농장원들의 한결같은 대답이다.

어찌 그렇지 않으랴. 일찌기 맹중협동농장을 찾아오시여 토지정리를 잘하고 농사일을 기계화하여 알곡생산을 늘이도록 하여야 한다고, 앞으로 맹중협동농장에 현대적인 농기계들을 집중적으로 공급하여 평안북도에서 농촌경리기계화의 시범단위로 꾸리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위대한 수령님.

맹중협동농장에서는 이미 거둔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토지정리사업을 계속 내밀어 농산작업의 기계화를 하루빨리 실현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신 위대한 장군님.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교시를 뼈속깊이 새기고 분발해나선 농장의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최근년간에도 기계화의 토대를 튼튼히 마련하기 위한 사업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거의 모든 면적에 콘모를 받아들이는데 맞게 자체의 힘으로 창안제작한 수십대의 씨뿌리는기계, 많은 로력과 연유를 절약하면서도 그 능률을 높일수 있게 완성한 논이랑짓는기계들, 농장원들이 임의의 장소에서 손쉽게 리용할수 있도록 제작한 근 100대의 이동식벼탈곡기…

하지만 사회주의협동벌마다에 우리가 만든 농기계들이 차넘치게 할데 대한 당의 높은 뜻에 비추어볼 때 결코 만족할수 없는 이들이다.

수령의 유훈관철전을 통하여 일군들이 더욱 깊이 새긴것이 있었다. 그것은 기계화비중을 높일 때 영농작업의 시기성은 물론 질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수 있으며 이것은 곧 알곡증산에로 이어진다는것이였다. 또한 여러가지 앞선 영농방법들의 도입도 기계화가 안받침될 때 더 좋은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것이였다.

이것을 깊이 명심한 농장의 일군들은 잠도리를 단단히 하고 떨쳐나섰다. 특히 영농작업의 기계화에서 제일 큰 몫을 차지하는 트락또르들의 가동률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사업을 혁신적으로 짜고들었다.

농장의 모든 트락또르들을 언제든지 만가동할수 있게 수리정비하기 위한 전투가 벌어졌다. 부속품을 비롯하여 걸린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하지만 백철수관리위원장과 리광철리당위원장을 비롯한 농장일군들은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대중의 심장에 불을 달며 모든 사업을 혁신적으로, 과학적으로 전개해나갔다. 또한 농장의 기계화초병들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한 사업에도 응당한 관심을 돌렸다.

특히 일군들은 기계화초병들속에 우리에게 믿을것은 자기 힘밖에 없으며 자강력이 제일 큰 힘이라는것을 깊이 인식시키기 위한 침입식정치사업을 들이대면서 그들을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기술자, 기능공들과 무릎을 마주하고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들을 토의하고 그들과 함께 땀도 흘리면서 걸린 문제들을 제때에 해결해주었다.

뿐만아니라 크랑크축을 비롯한 중요부속품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밤이 닳도록 뛰고 또 뛰였다.

일군들의 헌신에 고무된 기술자들과 운전수들은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여 트락또르수리정비를 성과적으로 끝냈다.

농장의 포전마다에서 트락또르들의 힘찬 동음이 끝없이 울려퍼졌다.

트락또르운전수들호상간 사회주의경쟁이 활기있게 벌어지고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다.

날에날마다 혁신이 창조되는 속에 영농작업실적은 하루가 다르게 높아가고있다.

영농작업의 기계화문제를 중시하고 완강하게 실천해나가고있는 이곳 일군들과 기계화초병들의 헌신적인 투쟁은 자랑찬 결실을 안아올것이다.

김성진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정신을 새겨안고

전천군당위원회 일군이 들려준 이야기

오늘 우리 일군들속에는 높은 실력만이 아니라 어머니다운 심정과 뜨거운 인정미를 지닌것으로 하여 대중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있는 일군들이 많다.

얼마전 우리와 만난 전천군당위원회의 한 일군은 군에는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정신을 지니고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고있는 일군들이 많다고 하면서 그들을 널리 소개해줄것을 거듭 부탁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숭고한 애국관과 헌신의 각오를 가지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멸사복무하여야 하며 스스로 무거운 짐을 맡아지고 대중의 앞장에서 뛰고 또 뛰여야 합니다.》

전천군 고인로동자구에서 사는 리영철동무가 오늘처럼 조선로동당원의 영예를 지니게 된데는 한영봉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의 숨은 노력이 깃들어있었다.

리영철동무로 말하면 지난 시기 인생길을 잘못 들었던 청년이였다.

그런 그의 마음속고충을 남먼저 헤아린 일군들은 이제부터라도 생활을 잘해나가자고 하면서 그가 안착된 생활을 할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었다.

그때 한영봉동무가 원심을 많이 썼다고 한다. 그는 인생의 새출발을 한 리영철동무를 만나면 우스개소리도 해주고 생활에서 제기되는것이 없는가를 늘 알아보군 하였다. 리영철동무의 아버지가 전쟁로병이라는것을 알게 된 일군들은 가정방문도 자주 하면서 그가 아버지세대들이 지니였던 숭고한 정신을 꿋꿋이 이어가도록 깊은 관심을 돌리였다.

리영철동무가 말밤에 오르게 되였을 때에도 일부 사람들이 머리를 저었지만 일군들은 그가 비판을 통하여 제때에 잘못을 깨닫고 고치도록 해주었으며 더 많은 일을 하고싶어하는 그의 마음을 헤아려 트락또르운전수로 일하도록 해주었다. 그리고 그가 거둔 자그마한 성과도 높이 평가해주군 하였다.

일군들의 이런 뜨거운 사랑과 정에 떠받들려 혁신자로 자라난 리영철동무가 조선로동당원의 값높은 영예를 지니게 되였을 때 그의 온 집안식구들은 얼마나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가.

한명의 로동자라도 뒤떨어질세라 늘 마음을 쓰는 한영봉동무의 모습에서 사람들은 병든 자식, 상처입은 자식 차별하지 않고 따뜻이 품어안아주는 어머니당의 온혈로운 사랑을 더욱 뜨겁게 새겨안았다.

군안의 무모없는 청년들을 만나보아도 모두의 가슴을 뜨겁게 울리는 이야기를 들을수 있다.

그 누구보다도 정을 그리워하는 그들을 위해 바친 한영봉, 전성일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의 진정은 참으로 감동적인것이였다. 그것은 단순한 인정이 아니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어깨우에 실린 중하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려는 백옥같은 충정의 마음에서 솔발한것이였다. 그 뜨거운 진정에 떠받들려 부모없는 청년들은 정신육체적으로 더욱 성장하게 되였다. 과영식동무를 비롯한 부모없는 청년들이 결혼을 하게 되였을 때에도 일군들은 결혼상도 차려주고 카구와 부엌세간도 일식으로 해주었으며 살림집까지 마련해주어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그때 한영봉동무는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자식들을 위해 집에 건사해두었던 이불감도 서슴없이 내놓았다고 한다.

그뿐이 아니다. 한영봉동무가 깊은 산중에서 묵묵히 일하는 산지함숙생들을 위해 바친 진정은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고있다. 그의 집에는 여러종의 과일나무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달리는 과일들은 해마다 산지함숙생들에게로 보내여진다고 한다. 때로는 로동자들과 함께 일도 하고 어울리면서 그들의 마음속고충도 알아보고 로동자들의 집을 찾으면 밥가마뚜껑을 열어보고서야 마음을 놓군 하는 한영봉동무의 진정은 친부모의 사랑그대로이다.

당과 수령에 대한 리얼이 맑고 깨끗한 충정의 마음을 안고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의 길에 삶의 자욱을 뚜렷이 새겨가는 참된 일군들, 바로 이런 충신들이 있어 우리 당의 인민사랑의 뜻은 더욱 활짝 꽃펴나는것이다.

본사기자

당정책의 열렬한 선전자—모범학습강사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람들이 어느때나 당의 목소리를 듣고싶어하고 당정책을 쌍수를 들어 지지할 때 가슴뭉클해지는 멋을 천금보다 더 소중히 여길줄 아는 사람이 참된 사상일군입니다.》

당의 사상과 믿음을 한생의 재부로 간직하고 당정책선전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는 모범학습강사들을 소개한다.

천금보다 더 소중한 긍지

단천시 령산협동농장 렴상남동무

22년간 학습강사로 활동해온 단천시 령산협동농장 농산제2작업반 렴상남동무에게 우리는 물었다. 어느때 제일 긍지있었는가고.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던 그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2년전 투철한 계급의식을 지니고 경제강국건설에 적극 떨쳐나설데 대한 내용의 강의를 하고난 뒤였다. 우리 식 사회주의를 말살하려는 제국주의자들과 온갖 계급적원쑤들의 발악적인 책동을 농업증산으로 짓뭉개버릴 열의에 넘쳐있는 농장원들을 둘러보던 그의 머리속에 며칠전 이동작업을 나간 작업반원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다음날 작업이 끝난 다음 그는 이동강의를 떠날 준비를 서둘렀다. 물과 떨떠 안되고 또 며칠 있으면 돌아오겠는데 그때 강의를 해주어도 되지 않겠는가고 하는 작업반초급일군의 만류를 뿌리치고 길을 떠나는 그의 심중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울려고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에서 당의 목소리를 제때에 알려주기 위해 하루밤에도 수십리길을 걷는 정신, 열백밤을 새가며 당정책을 학습하고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열정이 사상일군들의 몸에 푹 배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지 않았는가. 가자. 채벌장으로!)

자전거로 60리길을 달려 채벌장구역인 곰팔어구에 들어섰을 때에는 이미 날이 어두워졌었다. 신문이며 도서들, 후방물자까지 가득한 무거운 배낭을 지고 험한 산길을 또 5리 남짓하게 걷느라니 추운 날씨에도 얼굴로, 등골로 땀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높은지덕 땀을 흘리며 천막에 들어서는 학습강사를 본 농장원들은 깜짝 놀랐다. 강의를 하고난 그는 그들과 하루밤을 같이 자며 70일전투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자고 선동사업을 하였다.

이른새벽 작업반으로 떠나는 자기를 바래워주며 귀중한 사상정신적량식을 받아안았다고, 일을 더 잘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그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이런 멋에 학습강사활동을 하는구나, 험한 산길을 걷은 보람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새삼스럽게 갈마들고 정열은 용솟음쳤다.

포전에 나서면 누구보다 성실한 신농군, 구수하고 생활적인 이야기로 당의 사상을 귀에 쏙쏙 들어가게 해설해주는 우리 학습강사, 후대운 인정미로 작업반원들의 맏형, 친아버지가 된 우리 부문당위원장!

이것은 렴상남동무에 대한 작업반원들의 정다운 호칭이다.

고난의 시기 아버지를 잃고 홀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난 다음 마음의 안정을 잃고 말생을 부리는 한 청년을 맡아 우리 당의 사상을 뼈속깊이 새겨주고 생활상고충을 풀어주어 혁신자로 만든 사람이 바로 렴상남동무이다.

당에서는 수십년을 당초급선전일군으로 성실히 일하였으며 조선로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에 참가한 코나큰 영광을 안고 당정책선전에 더욱 비상한 열정을 바쳐가는 그를 모범학습강사로 내세워주었다.

천금을 주고도 바꿀수 없는 당초급선전일군의 영예와 긍지를 더욱 빛내이려 렴상남동무는 오늘도 변함없이 이어간다. 량심의 길, 의리의 길을.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향란

풍부한 자료가 안받침된 참신한 방법으로

황해북도당학교 교무부교장 조철동무

황해북도당학교 교무부교장 조철동무의 강의에서 특징적인것은 풍부한 자료가 안받침된 참신한 방법이다.

20년전 조철동무가 어느 한 대학에서 교원으로 일할 때이다.

당조직에서는 강의를 잘하여 신망이 높은 그에게 학습강사의

중임을 맡겨주었다.

조철동무는 당의 믿음에 실천으로 보답할 결심을 굳히였다. 첫 강의부터 잘해보리라고 생각한 그는 준비에 많은 품을 들이였다.

그런데 강의의 실효는 그닥 높지 못하였다.

원인은 무엇인가. 출연계강을 다시 훑어보았다.

청강자들이 이미 알고있는 자료들이였다. 대학교원들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들의 수준에 맞는 새로운 자료들을 찾아낸데 기초하여 강의를 방법론있게 진행하는것이 중요하다고 그는 생각하였다.

그때부터 그는 새로운 자료를 갖추기 위해 고심어린 나날을 보내군 하였다. 그는 한 강의를 위해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위대성도서와 참고자료를 보면서 몇밤을 지새웠다.

품을 들인 보람이 있었다. 특색있는 자료를 가지고 보다 참신한 방법으로 진행한 그의 어느 한 강의가 청강자들의 심금을 울렸던것이다.

그때 조철동무는 강사라면 웅변술도 좋아야 하지만 새로운 자료를 안받침하고 옳은 방법론을 찾아낼 때 강의의 실효를 더 높일수 있다는것을 깨닫게 되였다.

그후부터 그는 풍부한 자료를 안받침하기 위하여, 강의의 첫 시작부터 청강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참신한 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였다. 그의 강의가 언제나 청강자들의 심금을 틀어잡고있는 중요한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

하기에 그는 강좌장으로 임명되였을 때에도, 황해북도당학교 교무부교장이 된 다음에도 학습강사로 활동하면서 이 점을 중시하였다.

이런 그이기에 그는 도급기관 학습강사의 날에 자주 출연하여 안내강의를 할 때에도 단위의 실정에 맞는 풍부한 자료와 함께 방법을 끊임없이 혁신하여야 한다는 점을 자기의 강의활동과 결부하여 강조해주군 하였다.

이런 실례는 많다.

전기문제를 자체로 해결할데 대한 내용의 강의를 할 때에는 제목의 중요성을 먼저 강조하고 혜성강발전소건설에 바쳐오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에 대한 생동한 자료들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사상사업을 침입식으로 벌릴데 대한 내용의 강의를 진행할 때에는 침입식이라는 개념을 먼저 알려주고 그에 맞게 사상교양사업을 참신하게 진행하고있는 단위들의 구체적인 사업경험들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풍부한 자료를 안받침하여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강의를 잘해나가도록 안내강의를 하며 그 실효를 높이고있다.

이런 실례가 있다.

언제인가 공장앞에 중요한 생산과제가 제기되였을 때였다.

긴장한 로력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그것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없었다. 기능공들의 역할을 높인다면 로력문제를 얼마든지 풀수 있다고 생각한 김경숙동무는 혼자서 여러 기대를 맡아볼 결심을 가지였다.

공장일군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방조밑에 그는 여러대의 기대들을 맡아보면서 경험을 창조함으로써 긴장한 로력문제를 푸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그뿐이 아니였다.

생산문화, 생활문화화림을 위해 솜선 꽃씨와 꽃모들을 마련하여 공장구내에 정성껏 심고 가꾸어 종업원들의 애국심을 불러일으켰으며 여러가지 공구들과 부속품들을 마련하여 설비들의 정상운영과 관리에도 기여하였다.

이렇게 생산에서나 생활에서 언제나 이신작칙하는 김경숙동무의 강의는 공장종업원들속에서 커다란 생활력을 나타내였다.

이 나날 김경숙동무는 영광스럽게도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을 모신 시계표창을 받아안게 되였다.

평범한 로동자에게 한생에 다시 없을 영광을 안겨준 당의 크나큰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그는 오늘도 이신작칙의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휘하며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관철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공장로동계급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글 및 사진 리춘식

크나큰 믿음에 보답할 일념으로

원산통신케블공장 로동자 김경숙동무

원산통신케블공장 로동자 김경숙동무가 학습강사활동을 시작하던 시기에 있은 일이다.

천리마시대의 인간들을 따라배울데 대한 내용의 학습제강이 내려오자 김경숙동무는 천리마기수들이 발휘한 영웅적투쟁정신과 위

훈,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를 보여주는 자료들을 수집하여 강의준비를 하였다. 그의 출연제강을 보아주던 초급당일군은 천리마시대 우리 인민들이 발휘한 투쟁정신과 함께 그들의 모범을 본받아 혁신을 창조하고있는 공장종업원들의 자료도 함께 반영하면 실효가 더 클것이라고 의견을 주었다.

공장로동계급의 소행자료들이 안받침된 그의 강의는 청강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이날 강의를 통하여 김경숙동무는 현실에서 발휘되는 긍정적자료들을 리용한 강의의 실효성에 대하여 새삼스럽게 느꼈다.

더우기 대중앞에 나서서 강의를 진행하는 자신부터가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여야 하겠다는 결심을 굳히게 되였다.

그의 결심은 실천으로 이어졌다.

제18차 5.21건축축전과 제13차 건축미학토론회가 진행된다

제18차 5.21건축축전이 5월 7일부터 10일까지 평양에서 열리게 된다.

《국내산 건재를 리용하여 건축창조에서 자기 지방의 특성이 살아나게》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축전에는 전국의 건축설계, 시공, 건재, 감독, 과학연구, 교육기관과 련관단위 일군들, 근로자들이 참가하게 된다.

5.21건축축전은 건축설계안전시회와 건설장비 및 기공구전시회, 설계정보화전시회로 나뉘여 진행된다.

축전기간 제13차 건축미학토론회도 있게 된다.

토론회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는 본보기적건축물들이 창조된데 대하여서와 주체건축을 더욱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과학리론적문제들을 토론하게 된다.

일본 오사까 일조우호대표단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고가 시게루를 단장으로 하는 일본 오사까 일조우호대표단이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손님들은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조국과 민족, 시대와 력사앞에 영원불멸할 업적을 쌓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만경대일가분들의 애국적생애에 대한 해설을 들으며 소중히 보존되여있는 사적물들을 돌아보았다.

대표단은 또한 주체사상탑과 중앙동물원, 자연박물관, 옥류아동병원 등을 참관하였다.

중국에 가는 김일성종합대학대표단 출발

총장 겸 고등교육상인 태형철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김일성종합대학대표단이 중국 베이징대학 창립 120돐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2일 평양을 출발하였다.

평양역에서 김일성종합대학 1부총장 리국철동지와 심효강주조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참사가 전송하였다.

2018년 아시아축구련맹컵경기대회 9조(동아시아지역)경기소식

우리 나라 홰불팀과 4.25팀사이의 2차경기 진행

2018년 아시아축구련맹컵경기대회 9조(동아시아지역)경기가 계속 진행되고있다.

9조에 속한 우리 나라의 홰불팀과 4.25팀사이의 2차경기가 2일 김일성경기장에서 진행되였다.

3월 7일에 있은 1차경기에서는 4.25팀이 홰불팀을 1:0으로 이겼다.

망팀은 지난 시기 얻은 경험을 살리면서 경기를 보다 활력있게 운영해나갔다.

4.25팀에서 경기시간 19분경 10번선수가 상대팀의 반칙에 의해 얻어진 벌차기로 첫 득점을 한데 이어 경기시간 24분경 18번선수가 문전차넣기로 또다시 보기 좋은 꼴을 성공시켰다.

결국 경기는 4.25팀이 홰불팀을 2:0으로 이긴 가운데 끝났다.

브라질국회 상원 의원대표단

우리 나라 방문과 관련하여 연회 마련

브라질국회 상원 의원대표단이 우리 나라 방문과 관련하여 2일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안동춘동지, 외무성 부상 허용복동지,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 위원인 직총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동선동지, 관계부문 일군들이 초대되였다.

페르난두 플로르 브라질 전 대통령인 국회 상원 외교 및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브라질국회 상원 의원대표단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회참가자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존경하는 브라질련방공화국 대통령 미셸 메메르각하의 건강을 축원하여 잔을 들었다.

【조선중앙통신】

투철한 혁명신념을 지니고 우리 식 사회주의를 끝없이 빛내여갈 철석의 의지

오직 조선로동당의 붉은 기발아래서만!

혁명은 멀리도 전진하였다.

세월은 흐르고 세대도 바뀌였다. 하지만 강산이 변하고 혁명투쟁의 조건과 환경이 달라져도 절대로 바뀔수도 변할수도 없는것이 있다.

이 땅에 태를 묻고 사회주의지붕아래서 몸과 마음을 자래운 사람이라면 누구나 목숨같이 간직해야 할 그것은 과연 무엇인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혁명적신념을 굳건히 간직한 사람만이 혁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수 있으며 조국과 인민앞에 떳떳할수 있습니다.》

신념과 의지의 화신 리인모동지가 자기의 수기에 남겼던 글줄들이 되새겨진다.

《캄캄한 먹방에서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리며 다리도 못 펴고 웅크리고있느라면 나도 사람인데 그만 전향서에 손도장 하나 찍어주고말가 하는 생각이 왜 들지 않겠는가.

…그런데 당장의 육체적고통에서 벗어나고싶은 본능만큼이나 절실했던것은… 평산에서, 황남에서 새 조국건설사업에 신바람나게 뛰여다니던 시절이 못견디게 그리웠다.》

《나는 고통으로 몸부림치면서도 이를 악물었다. 〈나는 그 맹세를 지켜야 한다. … 이 시련을 이겨내야 한다. … 나는 굴복하지 않는다. …〉 고 다짐했다.》

사실 전향문에 지장을 찍는데는 불과 1초도 걸리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그 1초를 뿌리치고 34년간을 《산 사람의 무덤》 속에서 살았다.

34년, 그것은 그대로 신념과 지조를 지키느냐 버리느냐 하는 전향과 비전향사이의 치렬한 싸움의 나날이였다.

원쑤들은 인간으로서 차마 버려내기 힘든 육체적고통속에서도 사상을 버리지 않겠다는 혁명가의 신념앞에서 전률했다.

하다면 극악한 교형리들을 그토록 전률케 한 리인모동지의 가슴속에는 과연 무엇이 간직되여있었는가.

위대한 당의 사랑에 떠받들려 조국의 품에 안긴지 나흘째 되던 날에 리인모동지는 병원의 의사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나는 입당할 때의 맹세를 어길수 없어서 전향하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놈들의 야만적고문의 후과로 전신의 어느 장기 하나 성한것이 없고 사고력마저도 지둔해져 자주 혼수상태에 빠지군 하는 그가 입당날자와 당원증번호, 입당보증인의 이름을 정확히 외우고있는 사실앞에서 의사, 간호원들은 놀라움과 격정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적구에서의 수십년세월 하루한시도 자신이 조선로동당원임을 잊고 산적 없는 그였기에 모스크바도 넘어지고 사회주의도 다 없어지는데 북으로 꼭 가야 하겠는가고 회유하는 원쑤들에게 그는 단호히 선언했었다.

《내 조국은 북이지 남이 아니다. 시국이 어떻든 내가 내 조국으로 가자고 하는데 무슨 상관인가. 내 길을 막지 말라.》

리인모동지도 말했듯이 그는 일제의 학정밑에서도 살아보고 남조선땅에서도 살아보았다. 그러나 오직 위대한 수령님을 하늘같이 믿고 사는 길에 참된 삶이 있다는것을 심장으로 절감했기에 그는 세인을 경탄시키는 신념과 의지의 화신으로 어머니당의 품에 안길수 있었다.

조국의 아들로 부끄럼없이 살아온 인생을 뼛뼛이 총화하며 한 비전향장기수는 이렇게 말했었다.

《내가 신념과 의지를 지켜낼수 있은것은 조선로동당원이기 때문입니다.

변절은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에 대한 배신이고 당에 대한 배신이며 후대들에 대한 배신입니다. 그래서 죽더라도 변절할수 없었습니다.》

살아도 혁명적신념을 지켜싸우고 죽을 때에도 그것을 베고 죽는것이 혁명가의 인생이다.

혁명의 길은 순탄한 길이 아니다. 혁명의 길우에는 언제나 간고한 투쟁이 있게 되며 때로는 가슴아픈 희생도 있게 된다.

돌이켜보면 고난의 행군시기 우리 조국과 혁명앞에 들이닥쳤던 시련과 난관은 류례없이 가혹하고 준엄한것이였다.

클루리와 나무껍질도 귀했던 그때 아이들은 대용식품이라는 말을 새로 배웠다. 공장은 동을 멈추고 거리에는 불이 꺼졌다. 하지만 우리 인민은 일터와 기대옆에서 쓰러질지언정 출근길은 비우지 않았다.

자강도인민들은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억척스럽게 일떠섰다.

그들은 이르는 곳마다에 중소형발전소들을 일떠세웠고 장사태낭이 아니라 두엄태낭을 지고 길을 메우며 농장벌로 달려갔다. 굶어죽어도 기계설비를 베고 죽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공장을 떠나지 않은 로동자들은 자기들의 일터에 찾아오신 위대한 장군님께 먹을것이 아니라 일감을 달라고 아뢰였다.

자강도인민들만이 아니였다. 온 나라 인민이 고난의 천리를 가면 행복의 만리가 온다는 신념을 지니고 붉은기를 더 높이 추켜들었다. 원쑤들은 사면팔방으로 제재와 고립압살의 포위망을 조였지만 누구도 남의 지붕밑을 건너다보지 않았다. 억천만번 죽더라도 모든 시련과 난관을 뚫고 사회주의를 지키리라는 맹세를 안고 우리 제도를 사수하고 내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해 애국의 땀을 아낌없이 바쳤다.

하기에 우리 인민에게는 고난의 행군시기에 대한 추억이 슬픔에 대한 추억이 아니라 신념과 의지에 대한 추억, 승리자의 긍지높은 추억으로 깊이 새겨져 있는것이다.

래일에 대한 희망을 간직하고 찬란한 미래를 위하여 억세게 살며 투쟁하는 사람만이 최후의 승리자가 될수 있다.

허리띠를 졸라매면서도 이제 보라, 통장혼을 부를 날이 꼭 온다, 누가 최후에 웃는가 보자는 배짱을 가지고 오늘의 존엄높은 조국을 받들어올렸고 더 좋은 미래를 앞당겨 억세게 싸워가는 우리 인민, 그앞에는 바로 위대한 조선로동당이 있다.

창조와 건설을 해도, 침단을 돌파해도 오직 조선로동당의 붉은 기발아래서만 하겠다는것은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드팀없는 천만군민의 불변의 의지이다.

인민의 값높은 삶과 후손만대의 무궁한 행복도 오직 조선로동당이래에서만 꽃펴날수 있다!

우리의 천만군민은 죽어도 버리지 않을 억척의 혁명신념을 간직하고 영광스러운 당기발따라 이 세상 끝까지 가고갈것이다.

본사기자 조 향 선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

◇ 오늘 우리 인민은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새로운 진군길에 과감히 떨쳐나섰다.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용해공들을 비롯한 강철전사들은 한몸이 그대로 끓는 쇠물이 되여서라도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관철의 맨 앞장에 설것을 맹약하고 강철증산을 위한 투쟁에 돌입하였다.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는 당의 전략적구호를 심장에 새긴 과학자, 교육자들은 짧은 기간에 병진로선의 위대한 승리를 안아온 군수공업부문의 과학자들처럼 오늘의 하루하루를 백날, 천날맞잡이로 살며 투쟁할 열의에 넘쳐있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받아안고 용기백배, 기세충천하여 떨쳐나선 모습은 인민의 심장속에 간직된 당에 대한 투철한 믿음, 사회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 필승의 신념은 혁명가들의 고유한 사상정신적특질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신념으로 걷는 길이 혁명의 길이고 죽어도 버릴수 없는것이 혁명가의 신념입니다.》

혁명은 곧 신념이다. 신념이 없으면 혁명을 할수 없다. 혁명하는 사람들이 혁명적신념이 부족하고 계급적립장이 투철하지 못하여 원칙을 양보하기 시작하면 혁명의 전취물을 지켜낼수 없고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갈수 없으며 종당에는 곡절과 실패를 면할수 없다. 이것은 국제사회주의운동의 력사가 보여준 피의 교훈이다.

우리 인민이 장구한 기간 력사의 온갖 풍파속에서도 사회주의위업을 견결히 고수하고 자주적인민, 자주적근위병의 존엄을 떨칠수 있은것은 혁명승리에 대한 신념이 투철했기때문이다. 전체 인민이 강한 혁명적신념과 의지, 드센 배짱으로 싸웠기에 치렬한 반미대결전에서 승리를 이룩하고 혁명앞에 가로놓인 만난시련을 헤치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놓을수 있었다.

우리 인민이 지닌 혁명적신념은 그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도 드놀지 않는 확고부동한것이다. 사회주의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 이 땅우에 존엄높고 번영하는 강국을 일떠세우려는 우리 인민의 신념은 억척불변이다.

◇ 당을 따라 혁명의 천만리길을 끝까지 가야 한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이끄시기에 최후의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것이라는 철석의 신념과 의지를 더욱 굳게 간직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과 함께라면 기쁨도 영광, 시련도 영광이라는 고결한 인생관, 천지풍파가 닥쳐와도 당중앙을 따라 영원히 한길을 가려는 충정의 일편단심으로 매일, 매 순간 심장을 불태워야 한다.

지난 시기 우리 당의 병진로선의 승리를 굳게 믿고 절대적으로 지지하며 그를 위해 필요한 모든것을 우선적으로 보장한것처럼 혁명적인 총공세, 경제건설대진군길에 자신의 모든것을 아낌없이 바쳐야 한다.

우리는 당과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정과 열렬한 조국애를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남김없이 발휘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바라신대로 이 하늘아래, 이 땅우에 인민의 락원, 사회주의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워야 한다.

이 생명 다할 때까지

신의주마이싱공장 부원 백순동무

백순동무는 신의주마이싱공장에서 없어서는 안될 보배로 떠받들려 우고있다. 인생의 로년기에 이른 그가 어떻게 되여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아낌없는 존경과 사랑속에 삶을 빛내이고있는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은 단순히 태를 묻고 나서자란 고향산천이 아니라 인민들의 참된 삶이 있고 후손만대의 행복이 영원히 담보되는 곳이며 그것은 수령에 의하여 마련됩니다.》

1980년대말 평안북도당위원회 회의실에서는 뜻깊은 당원증수여식이 있었다. 거기에서 반백이 넘은 로인이 당원증을 수여받는 모습은 사람들의 눈길을 모았다. 그가 바로 백순동무의 아버지였다.

백순동무의 할아버지는 조선국민회 회원으로서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락철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의 직접적인 지도밑에 성장한 반일애국투사였다.

하지만 종파분자들의 모함으로 백순동무의 가족은 조국반역자의 가족이라는 오명을 쓰고 험한 가시덤불길을 걷게 되였다. 비림받았던 그들의 인생을 구원해준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따사로운 손길이였다.

어버이장군님께서는 반일투쟁에 참가한 사람들을 모두 찾아내여 애국렬사로 내세워주고 그 자녀들을 당에서 잘 돌봐줄데 대한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하여 력사의 갈피에 묻혀있던 백순동무의 할아버지의 공적이 바로 평가되고 그의 아버지도 63살에 당원증을 수여받는 크나큰 영광을 받아안은것이였다.

신의주마이싱공장 로동자로 일하고있던 백순동무도 그로부터 얼마후 조선로동당원의 영예를 지니였다.

그후 작업반장으로, 부원으로 사업하며 공장일에 온넋을 다 바쳐가는 백순동무에게 뜻밖의 불행이 닥쳐왔다. 현대의학의 힘으로도 어쩔수 없는 불치의 병에 걸린것이였다.

그때 백순동무가 제일 가슴아팠던것은 자기 가문에 베풀어주신 어버이장군님의 고마운 은덕에 보답하지 못하고 생을 마치게 되였구나 하는 생각이였다.

하지만 지방의 한 평범한 녀성의 병치료를 위해 수도의 이름있는 의료집단이 떨쳐나섰고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혜택이 그를 따뜻이 감싸안았다. 그의 몸에 끊임없이 흘러든 값비싼 약들과 그를 위해 바친 의료일군들의 뜨거운 정성에 의하여 백순동무는 어려운 수술부담을 끝끝내 이겨내였으며 여러해에 걸치는 회복치료에서 성과를 거둘수 있었다.

건강한 몸으로 병원문을 나서던 그날 백순동무는 가없이 푸르른 조국의 하늘을 바라보며 솟구치는 눈물을 걷잡지 못하였다.

눈물속에 다진 그날의 맹세를 그는 오늘도 지켜가고있다.

몇해전 총정의 70일전투가 힘있게 벌어지던 시기 그는 공장구내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모습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를 새로 모실 때에도 가정부인의 몸으로 통강군에 있는 화강석광산으로 달려가 광산로동계급을 불러일으켜 필요한 화강석을 마련하는데 적극 기여하였으며 또 어느해인가는 공장구내에 설치한 안전그물망에 불비한 요소가 있는것을 발견하고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에 찾아가 그곳 로동계급을 불러일으켜 공장의 생산문화, 생활문화확립에 이바지하였다.

공장에 건립한 영생탑과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든 직장의 계단에도, 연혁소개실과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실주변의 꽃밭에도 백순동무의 깨끗한 충정이 깃들어있다.

언제 어디서나 당의 뜻을 실천으로 받들어갈 한마음으로 두 자식을 다 조국보위초소에 세웠으며 지난 10여년간 원군길을 쉬임없이 걸어온 백순동무,

그의 심장은 언제나 보답의 일념으로 세차게 높뛴다.

(이 생명 다할 때까지 우리 당, 우리 제도를 충직하게 받들겠습니다.)

본사기자 허 명 숙

심장의 웨침-우리 공화국은 굳건할것이다

신포시계급교양관을 찾아서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신념은 생명과도 같다. 우리는 살아도 혁명적신념을 지켜싸우고 죽을 때에도 그것을 베고 죽는것이 혁명가의 참된 인생이며 그런 삶은 죽어서도 영생한다는것을 신포시계급교양관을 돌아보며 더욱 깊이 새겨안을수 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신념교양을 강화하는데 특별한 힘을 넣어야 합니다.》

신포시계급교양관의 정문으로 들어서는 우리의 눈앞에 전몰벽제에 새겨진 《피는 피로써》라는 글발이 안겨왔다. 마치도 증오와 분노의 피방울이 휘뿌려진듯싶은 그 글발을 바라보니 피에 젖은 어제와 행복의 오늘이 마주선 곳에 우리가 서있다는 생각에 가슴은 불을 안은듯 세차게 달아올랐다.

우리는 강사 리현화동무의 안내를 받으며 계급교양관을 돌아보았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신포땅에 기여든 미제와 계급적원쑤놈들은 애국자들을 야수적으로 고문학살하며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간직된 당과 공화국에 대한 신념을 허물어버리려고 악랄하게 날뛰였습니다. 하지만 인민들은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혁명적지조와 절개를 지켜 용감히 싸웠습니다. …》

공장설비를 안전한 곳에 보관한 다음 유격투쟁을 벌리던 신포선박수리공장(당시) 지배인이였던 김종룡동무는 적들과의 치렬한 전투에서 부상을 당하여 체포되게 되였다.

놈들은 진짜빨갱이를 잡았다고 패재를 올리며 이리떼처럼 달려들어 공장설비를 보관한 곳을 대라고 하면서 쇠몽둥이로 때리고 불에 달군 시뻘건 쇠꼬챙이로 그의 얼굴과 온몸을 지져댔다.

하지만 놈들은 그 어떤 야수적인 고문과 회유로써도 굳게 닫긴 그의 입을 열수 없었다. 그는 놈들을 단죄하며 추상같이 웨치였다.

《네놈들이 아무리 날뛰여도 우리 공화국은 어쩌지 못해.》

악에 받친 놈들은 그의 두손과 발을 묶어놓고 집게로 손톱과 발톱을 모조리 뽑아버리는 악형을 감행하였다. 이렇게 10여일간이나 갖은 고문을 들이대였으나 김종룡동무의 신념과 의지를 꺾을수 없다는것을 알게 된 놈들은 애국자들과 함께 그를 사형장으로 끌어내고는 총탁으로 머리를 까고 총창으로 얼굴과 온몸을 란도질하는 치떨리는 만행도 서슴지 않았다.

룡천면(당시)녀맹위원장이였던 김필련녀성을 체포한 원쑤놈들은 악질중에서도 진짜악질빨갱이를 잡았다고 하면서 처음에는 기만과 회유의 방법으로 조직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하였다. 그것이 통하지 않게 되자 놈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는 머리카락을 반나마 뽑고 가위로 모조리 베여버렸다.

그렇게 갖은 악착한 고문을 들이대였으나 놈들이 들은것이란 계급적원쑤들을 단죄하는 김필련녀성의 증오의 웨침이였다.

끝내 그를 굴복시킬수 없었던 원쑤놈들은 광손을 뒤로 묶은 다음 쇠줄로 코를 꿰여 사형장으로 끌고갔다.

너무도 처참한 모습에 눈물을 흘리는 인민들을 바라보던 김필련녀성의 입에서 노래소리가 흘러나왔다. 정시에 그가 제일 즐겨부르던 노래였다.

인민주권 받들고나가는 녀성들아
우리 힘에 조국리전 날마다 전설된다
…

기겁한 원쑤놈들은 더러운 손으로 그의 입을 틀어막으며 발광했다. 김필련녀성은 불이 펄펄 이는 눈으로 원쑤놈들을 쏘아보며 추상같이 웨치였다.

《조선로동당원이 어떻게 죽는가를 똑똑히 보라. 영명하신 김일성장군님께서 계시는 한 네놈들은 반드시 멸망하며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오늘도 래일도 우리 공화국은 굳건할것이다.

김일성장군 만세! 조선로동당 만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원쑤놈들은 그의 육체는 죽일수 있었어도 당과 수령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그의 강의한 신념, 공화국의 승리를 확신하는 그의 철석같은 의지만은 꺾을수 없었다.

사회주의조국을 목숨보다 귀중히 여기는 우리의 천만군민은 전세대들의 고귀한 넋을 이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결사옹위하며 이 땅우에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우고야말 신념과 의지에 넘쳐있다.

그 신념과 의지에 떠받들려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우리 인민의 둘도 없는 삶의 터전, 행복의 요람으로 빛날것이다.

본사기자 조 경 철

교양관에서- 본사기자 리동규 찍음

미제의 만행자료앞에서 격분을 금치 못하는 참관자들 -평안북도계급교양관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농촌청년분조, 청년작업반운동을 적극 벌리는것은 청년들이 농촌에 뿌리내려 사회주의농촌진지를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다그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숙천군 칠리농장의 포전길로 한대의 뻐스가 경쾌하게 달리고있었다. 뻐스에는 지난해 불리한 기후조건에서도 알뜨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한 자랑을 안고 군당위원회에서 조직한 축하모임에 참가하고 돌아가는 농장의 청년작업반원들이 타고있었다. 그날따라 청년작업반 당세포위원장인 김재남에게는 14년전 청년분조장(당시)으로 임명되였을 때의 일이 새삼스레 돌이켜졌다. 한다하는 실농군들도 미리짓던 땅을 정보당 10t이상의 소출을 내는 황금벌로 변모시킨 힘은 과연 무엇이였던가.

* *

청년분조가 조직되여 분조장이 여러번 바뀌였지만 분조에 내려갔던 그길로 되돌아온 사람은 아마도 재남이 처음이였을것이다.

박용국리당비서(당시)의 명에 들어서기 바쁘게 재남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저를 원래 작업반으로 보내주십시오. 자신이 없습니다.》

리당비서는 가슴아픈 눈길로 재남을 바라만 보았다.

칠리땅에 청년분조가 조직된것은 고난의 행군시기였다.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관심속에 애젊은 청년들이 이곳으로 달려왔다. 하지만 조국이 겪고있던 류례없는 고난과 시련은 청년분조의 포전들에도 그늘을 드리웠다. 영농자재는 물론 농사경험도 부족한데다 간석지를 개간한 곳이여서 염기피해까지 겹쳐들었고 관개수로에서 제일 멀리 떨어져있다보니 늘 물부족을 겪어야 했다. 거기에 때없이 들이닥치는 자연재해…

책상물림의 청년들은 신심을 잃었고 농장의 기수가 되여야 할 청년분조는 제자리걸음을 하고있었다. 바로 그러한 때 재남이 분조장으로 배치되였다.

19살때부터 분조장으로 일해온 재남이 청년분조를 맡아안기를 주저하는것은 결코 염기에 절은 척박한 땅때문만이 아니였다. 당시 분조에는 겹쳐드는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기 어려워 떠나간 청년들이 여럿이나 있었다. 그처럼 신심을 잃고 주저앉은 청년들을 진짜배기실농군으로 키워낼 자신심이 그에게는 없었던것이다.

한참만에야 리당비서는 심중한 어조로 말했다.

《못하겠다면 할수 없지. 하지만 분조원들을 다 모아놓고 인사라도 하고 가야 하지 않을가.》

그리하여 재남은 물불이 흩어져간 청년들을 찾아 밤이 샐도록 다니였다. 여기다림칸에서 지새운 밤은 그 얼마이고 차디찬 가을비를 맞으며 걸은 길은 또 얼마이던가.

그렇게 한사람, 한사람 힘겹게 찾아내여 농장으로 데려오느라면 온갖 고생을 무릅쓰고 먼 길을 걷는 자신이 새삼스럽게 생각되기도 하였다. 애써 설복하여 데려오는 청년분조원과 길가에서 나누어먹던 삶은 감자맛이 왜 그렇게 달았으며 어째서 한사람을 찾고나면 아직 찾지 못한 다른 사람에 대한 근심으로 마음이 무거워지는것인지 자기자신도 잘 알수 없었다.

재남이 마지막으로 찾아 떠난 분조원은 부모를 잃고 멀리 친척집으로 갔다는 청년이였다. 그 마지막 한사람을 찾기가 솔숲에서 바늘찾기만큼이나 어려웠다. 친척집이라는 한가닥의 실마리를 붙들고 수십리 떨어진 마을들에까지 찾아다니며 거름을 모아왔다. 고질적인 염기피해를 막기 위한 모래도 찾아내고 분조실정에 맞는 새로운 형식의 양수기를 만들어 긴장한 물문제도 풀었다.

황금물결이 일두삼천리벌을 통채로 뒤덮는 가을이 왔다.

희한한 소식이 온 농장에 전해졌다.

청년분조의 정보당 수확고가 지난해에 비해 4배이상 장성, 국가알곡생산계획 완수!

너무도 척박한 땅이여서 계획의 절반만 해도 큰 성과라고 하던 땅에서 불과 한해사이에 수확고를 kg으로가 아니라 t단위로 비약시킨 기세로 청년분조는 한층 높고 도약의 각지를 찾아 헤맨 끝에 그 청년과 마주서게 되였다.

땀에 젖고 먼지에 절은 옷차림, 두눈과 볼이 홀쭉하니 찌져들고 입술이 큰 고생이 력력한 재남의 모습을 넋없이 바라보던 청년이 믿어지지 않는듯 다시 물었다.

《정말 나를 찾아 그 먼길을 왔습니까?》

말할 때도 없는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재남을 바라보던 애어린 청년은 순간 눈물을 왈칵 쏟으며 재남의 품에 안겨들었다.

《그러니… 나때문에 고생하고… 속태우는 사람도 있었군요. …고맙습니다. 분조장동지.》

태를 묻은 고향과 고락을 같이하던 집단을 멀리 떠나 때늦은 후회속에 늘 정을 그리며 살던 한 인간의 목소리가 재남의 욕을 땅이 아니라 청년들의 마음속에 먼저 새긴 재남은 그들과 함께 대지를 걸구었다. 분조원들의 앞장에서 비림받던 갈밭도 개간하고 수십리 떨어진 마을들에까지 찾아다니며 거름을 모아왔다. 고질적인 염기피해를 막기 위한 모래도 찾아내고 분조실정에 맞는 새로운 형식의 양수기를 만들어 긴장한 물문제도 풀었다.

황금물결이 일두삼천리벌을 통채로 뒤덮는 가을이 왔다.

희한한 소식이 온 농장에 전해졌다.

청년분조의 정보당 수확고가 지난해에 비해 4배이상 장성, 국가알곡생산계획 완수!

너무도 척박한 땅이여서 계획의 절반만 해도 큰 성과라고 하던 땅에서 불과 한해사이에 수확고를 kg으로가 아니라 t단위로 비약시킨 기세로 청년분조는 당일군의 속깊은 마음을 리해하게 되였다.

이렇듯 분조장으로서의 첫 자립차에 전진하였다. 해마다 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이곳으로 수많은 청년들이 찾아오는 속에 청년분조는 청년작업반으로 발전하였다. 수확고는 한해가 다르게 올라갔고 100여개에 달하던 크고작은 논떼미들이 수십개의 규격포전으로 일신되였다. 생산문화, 생활문화가 높은 수준에서 구현된 청년작업반전통도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많은것이 달라졌는데 오직 하나 변하지 않은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재남의 집이였다. 청년청년들의 결혼식을 치르어준 그의 인해 유경심에게 크림단지 하나 쥐여주지 못했다는 사실이 그들의 가슴을 아프게 해주었다.

일두삼천리벌의 한끝에서 당의 농업정책을 받들어가는 평범한 청년작업반장을 어머니당은 김일성청년영예상수상자로 내세워주었으며 그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대표로 참가하는 영광을 지니였다.

못 잊을 당대회장에서 재남은 사회주의대지를 영원한 황금벌로 빛내이는 길에 자신의 한생을 다 바칠 신념의 맹세를 다졌다. 그날의 맹세는 정보당 수확고 10t이상이라는 놀라운 실적으로 이어졌으며 청년작업반은 3대혁명붉은기쟁취단위로 되였다. 청년작업반이 전국의 본보기단위로 평성을 떨치게 되자 그에게 보다 큰 단위를 맡아보는게 어떤가 하는 일군들의 권고도 잦아졌다.

《자기 나이도 생각해야지. 평생 청춘으로 남아있을수야 없지 않소.》

재남은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마흔고개를 훨씬 넘어선 자기가 청년작업반장으로서는 로년기에 들어섰다는것을 너무도 잘 알고있었기때문이였다.

(정녕 이 땅을 떠나야 한단말인가.)

이런 생각으로 마음이 무거워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날 아침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여러명의 작업반원들이 포전에 나오지 않았던것이다. 1년 열두달 결근이라는것을 모르던 그들이 무엇때문에 못 나왔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알수 없었다.

《결근자》들은 해가 중천에 떠올라서야 김명국리당위원장의 뒤를 따라 나타났다.

《동무네 청년작업반원들성화가 보통이 아니요. 동무를 절대로 못 보낸다면서 도당에까지 찾아가겠다누만. 내 지 동무들때문에 진땀을 뺐소.》

《예?》

머리를 숙이고 서있는 작업반원들을 바라보던 재남은 눈앞이 흐려들었다. 이렇듯 뜨거운 사람들과 10년이고 20년이고 이 땅에서 정을 나누며 함께 일하고싶지만 흐르는 세월을 잡아둘수 없는것이 눈물이 나도록 안타까웠다.

《반장동무가 부럽구만.》

이 한마디 말을 남기고 돌아서는 리당일군의 눈가에도 뜨거운것이 어려있었다.

며칠후 작업반기술원으로 일하던 김광명이 청년작업반 반장으로 임명되였다. 재남은 청년작업반 당세포위원장으로 사업하게 되였다.

앞으로도 계속 일을 잘하라고 고무해주는 군당혁임일군의 손을 부여잡고 재남은 뜨거운것을 삼켰다. 정든 대지에 삶의 뿌리를 영원히 내리고 황금벌의 주인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당의 사랑과 믿음을 또다시 받아안은 그의 심장이 보답의 일념으로 더욱 세차게 뛰여번졌다.

* *

어느덧 작업반에 도착한 재남은 어느때와 다름없이 포전들을 돌아보았다. 물기운이 스며든 대지가 부근부근하게 밟혀온다.

그는 애틋한 눈길로 대지를 바라보았다. 얼마나 뜨거운 정이 이 땅에 스며있던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사회주의대지에 심어주시고 싱싱하게 가꾸어주시는 황금벌의 씨앗-청년분조, 청년작업반.

온 나라에 무성한 이 청년대오속에서 땅을 알기 전에 먼저 정을 알고 포전을 가꾸기 전에 사람의 마음을 먼저 돌여다보는 진짜배기 땅의 주인, 황금벌의 주인들이 끊임없이 자라나고있는것이다.

재남은 습관대로 흙 한줌을 집어들고 비벼보았다. 부드러운 느낌이 기분좋게 온몸에 퍼져나가는 순간 그에게는 땅의 속삭임소리가 들려오는것 같았다.

영원한 청춘이 되여 대대손손 이 땅우에 황금가을을 안아올리라는 정겨운 목소리가. …

본사기자

실화 황금벌의 주인

자주성에 기초한 단결은 자주화위업승리의 담보

오늘 자주성을 실현하려는 인류의 지향과 념원은 날로 높아가고있다. 세계자주화위업을 전진시키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은 막을수 없는 시대적흐름으로 되고있다.

그러나 세계의 자주화를 위한 투쟁은 제국주의, 지배주의세력과의 심각한 대결을 동반하며 장기성을 띤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자주성을 옹호하는 당들과 단체들, 진보적나라들은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단결하고 협력하여야 합니다.》

반제자주력량의 단결은 인류의 자주위업수행을 위한 투쟁에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인류력사의 그 어느 시기를 막론하고 착취계급, 지배주의세력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을 떠난 사회적진보와 발전이란 없었다. 현시기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그에 제동을 거는 제국주의자들과 력사의 온갖 반동들을 반대하는 간고한 투쟁이다.

제국주의자들은 력사무대에 등장한 가장 포악하고 악랄한 침략자이며 인류의 자주적발전을 가로막는 주되는 반동세력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지향과 요구를 짓밟고 세계에 대한 저들의 지배질서를 세우기 위해 날뛰고있다. 제국주의반동들은 침략과 전쟁, 착취와 략탈을 반대하는 인민대중의 투쟁을 악랄하게 탄압말살하며 다른 나라들에 대한 군사적간섭과 침략행위를 서슴없이 감행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의 이러한 책동으로 하여 여러 나라들의 자주성이 무참히 짓밟히고있으며 력사의 전진운동이 저애당하고있다.

자주력량과 지배주의세력간의 대결은 반드시 힘의 대결을 통반한다.

반제자주를 위한 투쟁에서 무궁무진한 힘은 자주력량의 단결에 있다.

단결은 곧 승리이다. 자주를 지향하는 세계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단결하여 떨쳐나서면 제국주의자들은 함부로 날뛰지 못하게 되며 인류의 자주위업은 승리적으로 전진하게 된다. 때문에 제국주의자들은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단결을 제일 두려워하면서 그것을 파괴하려고 각방으로 책동한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이 군사적강권을 휘두르는것과 함께 심리모략전을 악랄하게 벌리며 자주적인 나라들에 《자유》와 《민주주의》바람을 집요하게 불어넣는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의식을 마비시키고 반제자주력량을 약화시키기 위해서이다.

단결은 세계자주화위업수행의 주체를 강화하기 위한 근본방도이다.

혁명에서 주체를 강화하는 문제는 그 승리를 좌우하는 관건적인 문제이다. 세계자주화위업수행의 주체는 바로 자주적으로 살려는 모든 나라 진보적인민들이다. 때문에 투쟁의 직접적담당자인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 모든 인민들의 단결을 이룩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세계의 모든 혁명적나라들과 진보적인민들이 단결하여야 반제자주력량의 결정적이며 압도적인 우세로 제국주의, 지배주의세력들을 고립약화시키고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갈수 있다.

자주성의 존중은 세계의 모든 나라 진보적인민들이 반제투쟁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진행된다. 매개 나라와 민족은 각이한 사상과 제도, 력사와 문화, 정견과 신앙을 가지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그들을 하나의 기치밑에 단결시키자면 나라와 민족들의 공통된 리해관계와 지향을 실현할수 있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

자주성은 나라와 민족의 생명인 동시에 인류의 생명이다.

어느 나라나 민족을 막론하고 자주성을 요구하며 자주성을 실현하는것은 공동의 투쟁목표로, 리상으로 되고있다. 반제투쟁을 벌리는 목적자체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간섭, 지배주의를 반대하고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기 위한데 있다. 이것을 위하여 반제자주적나라들은 단결을 귀중히 여기며 호상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고있는것이다.

반제자주력량의 단결은 곧 자주성을 지향하는 모든 나라 인민들사이의 단결이다. 자주성을 떠나서는 반제자주력량의 단결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으며 자주성에 기초하지 않고서는 진정하고 공고한 단결을 이룩할수 없다. 자주성을 존중하는것이야말로 반제자주를 위한 투쟁에서 여러 나라와 민족들의 단결을 실현할수 있게 하는 정치적조건으로 된다.

단결은 투쟁의 무기이다. 투쟁을 위해 단결이 필요하고 단합된 힘으로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발전, 인류의 자주위업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키기 위해 반제자주력량의 단결문제가 전면에 나서는것이다. 모든 나라 진보적인민들은 온 세계의 자주화가 실현될 때까지 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적극적인 투쟁을 벌려나가야 한다.

제국주의는 자기 시대를 다 산 력사의 퇴물이지만 스스로 력사무대에서 물러나려 하지 않는다. 오늘 제국주의반동들은 서로 결탁하고 련합하여 반제자주력량을 말살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다. 블럭불가담운동을 비롯한 반제자주력량을 분렬, 와해시켜 각개격파하고 저들이 주도하는 지배질서를 확립하려고 필사적으로 책동하고있다. 이로 하여 나라와 민족들의 자주권이 침해, 유린당하고 세계평화와 안전이 교란, 파괴되고있다.

현실은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 모든 나라 인민들이 단결과 련대성을 강화하고 단합된 힘으로 반제투쟁을 더욱 줄기차게 벌려나갈것을 그 어느때보다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자주성을 옹호하는 모든 나라와 인민들이 제국주의자들의 분렬리간책동, 각개격파전략을 단결과 련대성의 전략으로 짓부시는 바로 여기에 온 세계 자주화위업의 승리의 열쇠가 있다.

세계의 모든 혁명적당들이 련대성을 강화하고 단결하며 반제투쟁의 기수가 되여야 한다.

세계 진보적인민들이 자주성의 기치밑에 굳게 뭉쳐 투쟁할 때 제국주의반동세력의 지배주의책동은 맥을 추지 못하게 될것이며 온 세계 자주화위업의 전진은 더욱 다그쳐질것이다.

리 효 진

4월남북련석회의 70돐 기념강연회 일본 도꾜에서 진행

력사적인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련석회의 70돐에 즈음한 기념강연회가 4월 26일 일본 도꾜에서 진행되였다.

강연회에는 서충언 총련중앙상임위원회 국제통일국 국장과 리동제 재일조선인평화통일협회 회장을 비롯한 역원, 간사들, 손형근 6.15일본지역위원회 의장, 간또지방의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이 참가하였다.

강연회에서는 윤벽암 재일조선인평화통일협회 부회장이 발언하였다.

그는 해방후 민족의 분렬위기를 막고 통일독립을 이룩할데 대하여 토의한 남북련석회의가 진행된 때로부터 70년이 지난 오늘 조선반도정세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있다고 말하였다.

앞으로 북남관계가 개선되고 자주통일의 돌파구가 열리게 될것이라고 그는 확언하였다.

이어 강연이 있었다.

김원웅 조선왕실의궤 환수위원회 공동대표는 해방후 외세에 의한 국토분렬과 우리 민족을 영원히 둘로 갈라놓으려는 미국의 책동 그리고 남조선인민들이 지난 70여년간 친일, 친미보수세력을 반대하여 줄기찬 투쟁을 전개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강민화 재일조선인평화통일협회 부회장은 격변하는 조선반도정세를 정확히 보기 위해서는 북남관계의 전환적국면을 안아오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대담한 결단과 혈강들의 각축전장으로 수난을 당해온 조선반도의 지정학적숙명론의 종식 그리고 오늘의 조선에 대한 옳바른 리해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분렬의 어둠을 밀어내야 통일의 새 아침이 밝아온다고 하면서 재일동포들이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해나가자고 호소하였다.

이보다 앞서 21일부터 25일까지의 기간에 후꾸오까, 오사까, 교또, 고베, 나고야에서 강연이 있었다.

우리 나라 도서기증식 남아프리카에서 진행

우리 나라 도서기증식들이 4월 19일과 20일 남아프리카에서 진행되였다.

남아프리카진보적사상연구소조, 남아프리카 음루말랑가주 주체사상연구소조의 인사들과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기증식들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 우리 군대와 인민이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이룩한 자랑찬 성과들을 소개하는 도서들이 전달되였다.

남아프리카진보적사상연구소조 위원장은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김정은동지의 고전적로작들과 조선의 발전모습을 소개하는 도서들은 주체사상연구보급사업에 큰 도움을 주는 매우 귀중한 재부이라고 말하였다.

남아프리카 음루말랑가주 주체사상연구소조 위원장은 기증받은 도서들을 깊이 연구학습하여 주체사상이 구현된 조선의 현실을 남아프리카인민들에게 보다 광범히 선전해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4.24교육투쟁 70돐기념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 진행

4.24교육투쟁 70돐기념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가 4월 24일 일본 도꾜에 있는 조선회관에서 진행되였다.

허종만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과 배익주부의장, 조한주 재일본조선인교직원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 구대석 재일본조선인교육회 회장, 한동성 조선대학교 학장, 중앙단체, 사업체 책임일군들, 각급 학교 교장들, 교육회 회장들, 간또지방의 총련일군들과 교원들, 청년학생들이 대회에 참가하였다.

대회에서는 배익주부의장이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에서 제시하신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조국인민들이 산악같이 떨쳐나서고있으며 조선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격변하고 온 겨레의 평화통일열망이 전례없이 고조되고있는 시기에 4.24교육투쟁 70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1948년 1월 24일 미국의 사촉밑에 자주학교를 폐쇄하고 재일조선인자녀들에게 일본교육을 시킬것을 강요하는 《조선인설립학교의 취급에 대하여》라는 천만부당한 통첩을 각 도, 도, 부, 현지사들에게 내린 일본당국의 처사에 격분한 재일동포들이 각지에서 인민대회를 열고 민족교육사수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데 대해 언급하였다.

특히 효고에서 사는 수만명의 동포들은 4월 24일 현청앞에서 《조선학교를 목숨으로 지키자!》는 구호를 웨치며 완강한 투쟁을 전개하여 현지사가 《학교폐쇄》를 철회하도록 하였다고 하면서 그는 이것은 민족교육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커다란 승리였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일본 각지에서 연 100여만명의 동포들이 참가한 4.24교육투쟁은 갓 걸음마를 뗀 재일조선인운동을 압살하고 정당한 민족교육의 권리를 빼앗으려는 미일반동들의 탄압책동에 재일동포들이 단결된 힘으로 맞서싸운 재일조선인운동사상 가장 큰 규모의 첫 대중적투쟁이였다고 말하였다.

4.24교육투쟁을 통하여 하나로 굳게 뭉쳐 견결히 싸운다면 그 어떤 폭압책동도 짓부시고 민족적권리를 지켜낼수 있다는 신심을 새겨안은 재일동포들이 일본반동들의 민족교육방해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고 조선대학교와 조선학원의 법인인가의 획득, 정기승차권할인차별의 시정, 일본국내 공식경기참가자격의 획득 등 민족교육권을 옹호하고 확대하는 사업에서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오늘 일본당국이 감행하는 전대미문의 민족교육말살책동에 총련의 모든 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이 4.24교육투쟁정신을 이어 단결된 힘으로 과감히 맞서 투쟁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만 계시면 반드시 이긴다는 신념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조직의 두리에 굳게 뭉쳐 4.24의 넋이 깃든 조선학교, 총련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을 어떤 일이 있어도 기어이 지키고 김정은시대에 더욱 빛내여나갈 결의를 다지였다.

이날 4.24교육투쟁 70돐기념 력사자료전시회가 있었다.

한편 간또와 깅끼지방의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 학생들은 비가 내리는 속에서도 《부당한 차별을 즉시 그만두라!》 등의 구호를 웨치며 일본당국의 조선학교차별책동을 규탄하는 대규모의 동시행동을 전개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평화를 해치는 위험한 망동

일본의 군국주의광증이 극도에 달하였다.

얼마전 일본집권자가 봄철대제를 계기로 야스구니진자에 공물을 봉납하고 150명에 달하는 국회의원들이 떼를 지어 야스구니진자를 참배하였다.

한편 자민당 지방조직의 대회라는데 참가한 일본집권자는 《헌법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여 헌법론쟁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하면서 헌법개악을 위해 서로 협력하자고 떠들어댔다.

이 사실들은 아베일당이 군국주의와 해외팽창야망실현에 환장이 되여 날뛰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일본정객들의 야스구니진자참배는 단순히 일본의 내정문제가 아니다. 과거 일본이 아시아나라들을 대상으로 감행한 침략과 식민지지배에 대한 판점문제이다.

야스구니진자는 아시아나라들에 대한 침략전쟁에 뛰여들었다가 객사한 수백만명에 달하는 범죄자들 특히 태평양전쟁을 도발한 일본군국주의의 우두머리 도죠 히데끼를 비롯한 특급전범자들의 명부와 위패가 보관되여있는 곳이다. 일제에 의해 참혹한 피해를 입은 아시아나라들은 특급전범자들의 악명만 들어도 치를 떨고있다.

그런데 초당파의원련맹인 《모두가 야스구니진자를 참배하는 국회의원모임》의 회장이라는자는 다른 나라와 민족에 대한 침략과 과료적폭압에 미쳐날뛰다 개죽음을 당한자들을 《나라를 위해 목숨까지 바친분들》이라고 추어올리는 망언을 늘어놓았다.

야스구니진자에 국회의원들이 우르르 몰려가 참배하고 전범자들을 찬양하는 놀음을 벌린것은 곧 일본의 과거죄악을 전면부정하는것으로서 아시아나라들에 대한 모독이고 우롱이다.

오늘 일본은 군국주의국가로서의 제모를 거의 다 갖추었다. 현행헌법만이 장애물로 남아있다. 일본집권자는 어떻게 해서라도 현행헌법을 뜯어고쳐 거기에 공격무력으로서의 《자위대》의 존재를 쪼아박고 재침의 길에 가로놓인 법적장애물을 제거하려 하고있다. 일본을 전쟁을 할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해보겠다는것이다.

《자위대》는 정규무력처럼 모든 군종, 병종을 가지고있으며 선제공격능력도 보유하였다. 얼마전에는 일본판해병대로 불리우는 수륙기동단을 창설하였다. 《F-35A》전투기들과 함께 전투기탑재용장거리순항미싸일들, 지상배비형요격미싸일체계 《이지스 어서》도 구입하려 하고있다.

최근 영국의 로이터통신이 전한데 의하면 미국의 록키드 마틴회사가 일본에 최신에스텔스전투기설계를 제공하려 하고있다. 미국은 일본이 중국을 압도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설계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한다. 일본은 슬한 군사비를 랑진해야 할 스텔스전투기개발계획도 중국과 로씨야전투기들의 명공침입을 막는다는 미명하에 추진하려 하고있다.

일본《자위대》의 군사작전범위는 태평양은 물론 인디아양으로까지 확대되고있다. 일본은 미국을 등에 업고 재침의 길에 나서려 하고있다.

그러한 행위는 제 무덤을 파는 무모한짓이다.

박 예 경

대결을 조장하는 《인권》모략소동

최근 우리 공화국의 련속적이며 주동적인 조치에 의하여 조선반도정세가 급격히 전환되고있다. 북과 남사이의 대화와 협력의 길이 열리고 긴장완화의 분위기가 조성되고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겨레는 물론이고 국제사회가 적극 환영해나서고있다.

그런데 미국은 조선반도의 현정세흐름과 관련하여 온당치 못한 태도를 취하면서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고있다. 미국이 그 무슨 《북인권》문제라는것을 집요하게 여론화하고있는것도 그것을 말해주고있다.

얼마전 미국집권자는 일본수상 아베와의 회담에서 《〈북인권〉문제를 제기》하였다느니, 《지금이야말로 해결해야 할 때》이라느니 하고 떠들어댔다. 백악관 관계자들도 저들이 《〈북인권〉문제에 대해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있다.》고 하면서 그것을 《대조선정책에 반영하고있다.》고 맞장구를 쳤다. 한편 미국무성은 《2017년 나라별인권보고서》라는것을 발표하면서 그 무슨 《인권침해》니, 《불안정세력》이니 하고 우리 공화국을 마구 무지하게 걸고들었다. 미국의 반공화국《인권》모략책동은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산물로서 군사적대결과 병행하여 우리에 대한 압박을 일층 강화하기 위한 비렬한 망동이다.

미국은 주체의 기치를 높이 들고 반제자주의 길, 사회주의길로 꿋꿋이 나아가는 우리 공화국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며 력사상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가장 악랄하고 비렬한 방법으로 반공화국압살책동을 벌려왔다. 반공화국《인권》모략책동은 그 한 고리이다.

미국은 있지도 않는 《북인권》문제라는것을 들고나와 우리의 존엄높은 영상을 흐려놓고 반공화국제재압박소동을 정당화하면서 그것을 더욱 강화하려고 꾀하고있다. 이런 흉악한 계책밑에 미국은 갖은 수단과 방법으로 모략적인 《북인권》문제를 극구 여론화하며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 발전권을 말살하기 위한 도발적망동에 피눈이 되여 날뛰여왔다. 미국의 반공화국《인권》모략책동은 북남관계개선의 기운이 고조되고 조선반도정세가 대화와 긴장완화에로 지향되고있는 오늘 더욱 악랄하게 감행되고있다. 이것은 사태의 엄중성을 더해주고있다.

인민대중의 자주적지향과 요구를 실현하는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내세우고있는 우리의 사회주의제도에서는 《인권》문제라는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공화국에서 인민은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고있다.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 인민은 참다운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조국땅 그 어느곳에서나 인민의 꿈과 리상이 현실로 꽃펴나고있다. 이에 대하여서는 온 세계가 경탄해마지 않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불순하기 짝이 없는 《북인권》나발을 불어대며 대결소동에 광분하는것은 본질상 우리의 존엄높은 체제에 대한 공공연한 무정이고 용납 못할 우롱이며 타무니없는 모략중상이다.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미국의 《인권》모략책동은 대화와 평화의 흐름에 장애를 조성하는 도발소동이다.

알려진바와 같이 우리 공화국은 정초부터 북남관계파국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고 평화와 통일의 길을 활짝 열어나가려는 의지밑에 북남관계대전환방침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한 과격적조치들을 련속 취하였다. 이것은 북남사이의 대화와 관계개선을 추동하고 조선반도정세를 극적으로 전환시키였다. 조선반도의 현정세국면은 자주적인 조국통일로선과 대외정책으로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고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려는 우리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이 안아온것이다.

지금 내외의 커다란 관심과 이목이 대화에 쏠려있는 바로 이런 때에 미국이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에 열을 올리는것은 대화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으려는데 그 진독적이 있다. 벌어지고있는 사태는 과연 미국이 대화의지를 가지고있는지 그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수 없게 하고있다.

지금 전체 조선민족은 물론 국제사회도 미국이 우리 공화국의 성의있고 아량있는 주동적조치들에 화답하여 대조선적대시정책을 하루빨리 철회하고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길로 나서야 한다고 일치하게 주장하고있다. 미국이 이러한 흐름에 배치되게 《북인권》문제를 운운하며 여론을 오도하고있는것은 결국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할 의사가 없으며 어렵게 마련된 대화마당을 대결장으로 만들겠다는것으로밖에 달리 볼수 없게 하고있다.

불순한 정치적목적을 위해 《북인권》문제를 인위적으로 꾸며내고있는 미국의 비렬한 행위는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지금 국제사회는 세계최대의 인권유린국은 다름아닌 미국이라고 하면서 미국은 다른 나라들의 내정에 간섭하며 그 누구의 《인권》문제를 거들기 전에 제 집안의 한심한 인권상황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미국은 격에 맞지도 않는 《인권재판》흉내를 그만 내고 《인권유린왕국》의 오명을 뒤집어쓴 저들의 심각한 인권문제를 해결하는데 신경을 쓰는것이 좋을것이다.

본사기자 김 현 철

중국에서 독본 《남경대학살》 출판, 발행

중국에서 최근 남경대학살의 력사적사실을 반영한 청소년과 학지식보급독본 《남경대학살》이 출판, 발행되였다.

독본은 15만자에 5개의 장절로 구성되여있으며 남경대학살의 참혹한 력사와 전후 전범자들에 대한 심판 등을 전면적으로 소개하였다.

한 저자는 남경대학살력사가 중화민족의 가장 쓰라린 민족적기억으로서 중국청소년들에 대한 력사교육과 애국주의교양의 중요내용으로 되여야 한다고 하면서 독본이 독자들로 하여금 평화의 전지에서 인류운명공동체건설에 대한 사고를 하도록 하는데 이바지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꾸바에서 5.1절 기념

꾸바에서 전세계근로자들의 국제적명절 5.1절을 성대히 기념하였다.

수도의 아바나혁명광장에서는 수십만명의 각계층 군중이 참가한 5.1절기념 집회와 시위가 진행되였다.

꾸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라울 까스뜨로동지와 국가리사회 위원장 미겔 마르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동지가 행사에 참가하였다.

행사에서 연설한 꾸바근로자중앙총서기는 오늘의 시위는 영광스러운 꾸바혁명의 튼튼한 토대를 과시하고 사회경제제도에 대한 인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보여주는 시위로 된다고 하면서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꾸바의 전진을 가로막을수 없으며 꾸바의 사회주의제도는 절대로 멈춰서지 않을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근로자들이 《단결, 헌신, 승리》라고 쓴 구호판들을 들고 당과 정부에 대한 믿음과 지지, 사회주의기치를 변함없이 고수할 결의를 피력하며 시위행진을 벌렸다.

이날 전국각지에서 기념집회들이 진행되였다.

【조선중앙통신】

중국과 도미니까 대사급외교관계 수립

중국과 도미니까가 1일 두 나라사이의 대사급외교관계수립에 관한 공동콤뮤니케에 조인하였다.

공동콤뮤니케는 두 나라 정부가 주권 및 영토완정에 대한 호상존중과 호상불가침, 내정불간섭, 평등과 호혜, 평화공존의 원칙에 기초하여 친선관계를 발전시키는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두 나라사이의 외교관계수립에 관한 공동콤뮤니케가 베이징에서 조인되기에 앞서 도미니까는 대통령공보를 발표하여 하나의 중국원칙을 인정하며 대만지역과의 이른바 《외교관계》를 단절한다고 선포하였다.

미국의 핵합의탈퇴시도에 다시금 경고, 핵합의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을 립장 천명

이란대통령 하싼 루하니가 4월 21일 핵합의에서 탈퇴하려는 미국의 그릇된 시도에 다시금 경고하였다.

그는 이란정부는 핵합의와 관련한 미국의 그 어떤 각본에도 충분히 준비되여있으며 적들이 예견하고있거나 지어 예견하지 못하고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평화한 전략을 가지고있다고 하면서 미국이 합의를 파기하는 경우 즉시적이며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날 이란원자력위원회 위원장은 핵합의가 파기되는 경우 이란은 4일내에 20%농도의 농축우라늄생산을 재개할수 있으며 미국에 고통으로 될수 있는 다른 능력도 갖추고있다고 밝혔다.

한편 그는 4월 25일 핵합의에 대한 그 어떤 변경도 허용하지 않을 립장을 천명하였다.

이란은 핵합의에 그 무엇을 첨부하거나 삭제하지 않을것이며 단 한문장도 바꾸지 않을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유럽나라 근로자들

생존권을 요구하여 시위와 집회

유럽나라들에서 5.1절을 맞으며 수많은 근로자들이 생존권보장을 요구하여 대중적인 시위와 집회를 벌렸다.

프랑스의 빠리에서는 수십만명의 각계층 군중이 시내거리를 따라 행진하면서 근로자들에게 초보적인 생존권을 보장할것을 당국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경찰들이 시위자들에게 최루가스와 물대포를 쏘아대며 탄압에 광분하던 끝에 200명을 체포해갔다.

도이췰란드의 주요도시들에서도 수천명의 근로자들이 자본주의제도를 반대하는 구호를 웨치면서 당국의 그릇된 처사로 자기들의 처지가 악화되고있는데 대해 규탄하였다.

그리스의 아테네를 비롯한 여러 도시들에서 수많은 근로자들이 세무위기로 당국이 실시하고있는 반인민적인 긴축정책을 단호히 반대하였다.

이딸리아의 로마에서도 이와 같은 시위가 일어났다.

【조선중앙통신】

표면화되는 중미사이의 대립과 마찰

얼마전 중국외교부 대변인이 자국의 인권상황을 걸고든 미국의 처사를 배격해나섰다.

미국무성 동아시아태평양문제담당 차관보가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신강위구르자치구에서 최소한 수만명의 사람들이 구금상태에 있을것이라고 발언한것이 동기로 되였다. 그는 중국정부가 자국공민들에 대한 구속에서 응당한 합법적절차를 지킬것을 강력히 요구할것이라고 횡설수설하였다.

지난 1월에 미행정부의 후원을 받는 《자유아시아방송》이 신강위구르자치구 서남부에 있는 한 재교육시설에만도 12만명이상이 구금되여있다고 보도한적이 있다. 미국무성 동아시아태평양문제담당 차관보의 발언은 《자유아시아방송》이 진행한 악선전의 연장이다.

이에 대해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신강위구르자치구의 모든 민족들이 정온하게 살고 일하는 모습을 모두가 볼수 있을것이라고 하면서 미국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평가하며 중국의 내정에 대한 그 어떤 간섭이나 부당한 비난도 그만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최근 중국외교부는 미국무성이 《2017년 나라별인권보고서》라는데서 거짓과 편견에 기초하여 자국의 인권상황을 또다시 걸고든데 대해서도 이러한 방식으로 자국의 내정에 간섭하고 발전에 영향을 주려는 시도는 헛수고에 지나지 않을뿐아니라 앞으로도 성공하지 못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중국국무원 보도판공실은 미국의 계속되는 인권공세에 대처하여 《2017년 미국의 인권기록》과 《2017년 미국의 인권침해사건록》을 발표하였다. 중국은 미국이 《인권의 수호자》, 《도덕적인 재판관》으로 자처하면서 다른 나라의 내정과 인권상황에 대해 함부로 평가하고 마구 헐뜯고있지만 미국자체의 인권기록행적은 여전히 더러우며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추이를 보이고있다고 조소하였다.

중국과 미국사이의 무역분쟁와 7년간 거래할수 없다는 결정을 제때한 미상무성의 조치만 놓고보아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중흥통신공사가 미국관리들에게 허위진술을 하였다는것이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되였다. 그렇지 않아도 이 공사는 지난해 대이란수출제한조치를 위반하였다는 리유로 미상무성으로부터 12억US$의 벌금을 부과받은 상태이다. 이것은 미국력사상 최대규모의 벌금조치라고 한다.

미국의 사촉을 받은 영국도 자국의 이동통신회사들에 중흥통신공사의 생산품을 쓰지 말것을 경고하고있다. 중국이 이 기회에 이모저모로 제동을 걸고있다고 전하였다. 그러면서 미국이 앞으로도 첨단기술분야에 대한 중국의 《불공정한 행동》들을 문제삼아 압박을 더욱 강화할수 있다고 예평하였다.

실지로 지금 미국은 중국이 자국기업들에 기술이전을 강요한다느니, 중국의 고도과학기술발전이 자국의 국가안전을 위협한다느니 하고 떠들면서 국내에서 중국기업들의 활동을 제한하려는 기도를 로골화하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은 미국의 과렴치한 시도는 《자기에게는 있어도 되지만 남에게는 있어서는 안된다.》는 패권심리의 반영이라고 까밝히면서 미국은 과학기술발전이 전인류의 복리에 복무하여야지 그 어떤 국가의 패권추구의 도구로 되여서는 안된다는것을 명심해야 할것이라고 못박았다.

중국은 이미 미국과의 무역분쟁이 시작된 첫 시기부터 미국이 함부로 날뛴다면 자국은 반드시 단호하게 칼을 뽑아들것이라는 결절한 립장을 대내외에 명백히 밝혔다.

중흥통신공사에 대한 미국의 제재조치에 대응하여 중국은 미국산 수수가 국내기업들에 무정적영향을 미친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보복을 시사하였다.

중국과 미국사이의 대립과 마찰은 갈수록 더욱 표면화되고있다. 대부분의 정세분석가들은 서로 상반되는 전략적리해관계를 추구하는 두 대국사이의 관계에서 불협화음이 울려나오는것은 어쩔수 없는 일이며 호상간의 모순을 해소한다는것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더더욱 불가능한 일로 되고있다고 평하고있다.

본사기자 안 철 권

ㄱ-810697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등록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편집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6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독자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